광주전남혁신도시
광주전남의 내일 - "빛가람도시"
솔라시도
SolaSeaDo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혁신지원센터
2014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
행복마을
행복마을은?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 마을을
사람이 살고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현주민들과 후손들이 정착하고
도시민들이 돌아오는 마을로 만드는 것입니다.
전통이 가미된 생활한옥을 기반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2

7대 분야별 역점추진 시책

제1절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제2절 신재생에너지
제3절 3농정책과 친환경농업
제4절 바다경영
제5절 관광개발 및 문화융성
제6절 지역개발
제7절 맞춤형 복지
제8절 현장행정

1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경상남도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산업화에 뒤쳐진 전남을 일으키다

우리나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있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다. 전남은 1960년대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산업화의 축으로부터 비켜나 공장도 없고 일자리도 부족한 채 대부분 농사만을 짓고 살았다. 그래서 한때 전남은 '버려진 땅'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살았다. 그런데 21세기 문화의 시대와 함께 레저와 건강을 강조하는 시대적 환경으로 인해 전남은 새로운 생명의 땅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전남은 버려진 땅이 아니었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경제에서 전라도가 차지해온 중요성은 한반도가 고려라는 단일국가로 형성된 이후 조선을 거쳐 대한민국이 설립된 이후 1960년대 초까지 지속됐다. 6·25 전쟁의 와중에서 목포 백제약국 창업자인 김기운 회장은 쌀을 배에 싣고 부산에 가서 팔고, 대신 약품을 구입해 훗날 국내 최대의 의약품 유통업체로 성장할 토대를 마련할 정도였다. 이 같은 일화에서 보듯이 그때까지만 해도 전라도는 다른 지역의 경제 규모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당연히 경제성장 측면에서 '호남 푸대접'이란 말도 생길 수가 없었다.

그러나 1960년 경부선 축을 위주로 고속도로가 먼저 건설되면서 산업물동량이 증가하고 철도복선화와 같은 사회적 기반시설이 들어선 이후 각종 공장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농산물 생산으로 근근이 이어가던 전남경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남권 경제는 급성장하면서 짧은 기간에 그 격차를 크게 벌려 놓았다. 호남지역에서 전북은 논외로 하더라도 전남의 큰 기업이라고는 일제

강점기 때 설립된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목포의 조선내화 정도였다.

3공화국 정권이 들어선 뒤 나주비료공장, 기아자동차, 여수산업단지 등이 들어섰지만 워낙 규모가 작아 산업자본으로서 역할은 미미했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수출드라이브형 선도적 경제개발정책 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전남 경제는 점차 낙후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리고 이 여파는 이후 전남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에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민주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지역균형발전 등의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워낙 짧은 정권을 유지하여 경제낙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각 지역 균형 개발을 표방한 민주정부였지만 단기간 내에 그간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에는 너무나 격차가 벌어져 있었던 것이다.

너무도 빈약한 곳간, 그러나…

지난 2004년 7월 박준영 도지사가 허경만, 박태영 도지사에 이어 민선 3기의 전라남도 살림을 맡았다. 박 지사가 취임할 무렵의 전남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였다. 전남의 전체 인구가 200만명 이하로 떨어졌고, 1년 평균 3만 6,000명 정도가 줄어들었다. 세수는 연간 3천억원에 불과했으며, 이 돈으로 도공무원 1년 급여를 주면 그만일 정도였다.

'근대화'를 기치로 내건 대한민국의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은 공단이 들어가고 대기업이 들어가서 공업화로 치닫고 있었지만 전남에는 동부권이 중화학공업을 제외하면 이렇다할 산업기반이 없었다. 당시만 해도 산업단지 분양을 하면 분양률의 40%에 그쳤고, 그나마 공장 입주도 50%를 넘지 않았다. 결국 남은 것은 농업 뿐이었다.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려는 젊은 인력은 거의 없었고 도시로 떠나는 인구가 많아 농촌인구가 줄어들었다. 이에 대한 농촌인력도 일할 수 있는 영세가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공단지가 들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오히려 도시에서 생산인력을 버스나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기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전남경제 침체의 바탕은 수십 년간 쌓여온 '외부요인'이었지만 그것만을

탓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도 심각했다. 획기적인 돌파구가 절실한 시점이었다. 그래서 전남도는 다각적인 검토 끝에 전남만의 차별화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시도했다. 다른 시 · 도 역시 필사적으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 대책을 내세우고 있었다. 여기에 비하면 전남은 다른 시 · 도와 비교할 때 인프라를 비롯하여 기업유치면에서 매우 불리했다. 이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전남만이 지닌 장점을 극대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다양한 힘을 모았다.

우선 전남이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천혜의 환경과 지리적 요인이다.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가 경부선 축에 집중되고 굴뚝공장들이 많이 들어선 가운데 역설적이지만 전남은 상대적으로 오염되지 않는 자연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 운 좋게도 세계 산업의 패러다임이 중후 장대한 시설을 요하는 공장에서 첨단의 IT,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산업 등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남도는 박준영 지사의 취임 이후 전남의 브랜드를 '녹색의 땅'이라 정했다. 지난 2005년 이후 도정 슬로건을 '녹색의 땅 전남'으로 정하고, 태양광 발전, 풍력 · 조류,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수산업을 육성하면서 우리나라 녹색성장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는 녹색성장정책을 바탕에 둔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 친환경 녹색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환경보호와 지역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산업화 정책 우선순위에서 '소외'된 아픔이 이제는 친환경 산업화를 성공시킬 장점이 될 기회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라남도가 구상한 친환경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전남의 산업화 정책 추진은 성공적이었다. 지난 10년의 성과를 살펴보면 친환경 산업화 정책이 단순히 경제력 향상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 사회, 문화 같은 다른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한 사례로 학교 급식은 물론 국민의 식탁에서 친환경 식재료가 대중화된 점, 환경오염의 배제 또는 최소화한 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전남만이 지닌 지리적 장점은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전남의 생산물을 바로 앞에 펼쳐진 거대시장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력적이다. 대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다각화한다면, 또 그런 노력을 계속한다면 전남경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전남의 약점이 바야흐로 전남의 강점으로 등장할 기회를 맞고 있었다. 전라남도는 이 점을 주목했다.

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생물산업

전라남도는 전남만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원, 산림과 바다, 농사로부터 얻어지는 것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로울 수 있는 특화된 친환경 산업에 눈을 돌렸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무엇보다도 전라남도 최대 당면 정책의 하나인 기업 유치면에서 실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지난 2004년 6월에서 2013년 12월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4,067개의 기업체를 유치해 약 45조원 투자와 14만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같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전남의 인구 감소세를 저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한 해 평균 3만6,000명씩 줄어들던 인구가 2013년의 경우 1,504명이 줄어드는 데 그쳤다. 또한 이 같은 기업유치를 통해 식품가공,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산업과 같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함으로써 1차 산업과 더불어 2차, 3차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친환경 정책 안에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기업 유치를 추진하면서 특성화 산업단지 조성도 병행하였다.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빛그린국가산업단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곳에는 생물, 의학, 신소재, 광(光)산업, 자동차부품 업종이 들어서는데 2016년 완공될 예정이다.

전남의 특장점을 활용한 생물산업 육성을 위해 R&D 기반도 확실히 다져왔다. 나주 식품산업연구원, 화순 생물의약연구원 구축을 시작으로 천연자원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 생물방제연구원, 나노바이오연구원,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등이 전남만의 특화된 생물산업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생물산업 육성은 예상을 뛰어넘는 효과를 이끌어냈다. 한 예로 화순 의약산업단지내 국내 유일의 생물의약연구원은 지난 2009년 신종플루 공포가 전 세계에 유행할 때 신속하게 백신을 공급해 경제적 수익 창출의 차원을 떠나 국민건강의 지킴이 역할을 했다. 이 연구에서는 탄저 백신, 백일해 백신, 여성 자궁경부암 백신, 수의 백신 등 국내서 개발된 19개 백신 중 6종을 생산하고 있다.

생물산업은 전남지역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1차 산업인 농수산업을 강화시키는 기반이자 1차 산업을 첨단산업으로 변모시키는 이점을 지녔다. 동시에 안보산업이기도 하다. 전쟁터에서 발생하는 생물전, 화학전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전남의 생물산업은 연구시설과 생산시설이 결합되어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로 시장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지역이 넘볼 수 없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신소재 · 우주항공 클러스터 조성

전남의 또 다른 차별화는 신소재산업이다. 신소재는 자동차, 우주항공, 정보통신에 필요한 첨단기술의 복합체이다. 전라남도는 이 점에 착안해 신금속, 파인세라믹, 고분자융 · 복합소재 등 신소재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순천의 마그네슘 경량소재 공장, 목포의 파인세라믹 거점센터, 고흥 고분자 융 · 복합소재센터가 그 역할을 맡아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헬스케어소재산업도 첨단산업이라 할 수 있다. 생물산업과 연관된 헬스케어 소재산업은 전남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호남권 비교우위 생물자원 120여 종을 소재로 연구하고, 개발하여 상품화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시스템을 갖추었다. 여기서 나온 제품들이 기능성 식품, 화장품, 의약품으로 만들어져 수익을 창출한다. 헬스케어소재산업은 국내시장은 물론이고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이후 우리나라 신품종 사업, 차후 먹을거리 산업의 대주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남도가 육성하는산업 중에서 고흥 우주항공 클러스터는 국내 유일무이한 산업이다. 여기에도 전남만이 지닌 자연환경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연중 안개 낀 날이 가장 적고, 발사기능 방위각, 낙하지점 안정성 확보, 보안성 면에서 고흥은 최적지였다. 우주항공 클러스터는 단순한 기술차원에서 벗어나 연구, 개발, 시행은 물론이고 우주천문과학관 설립에서 보는 것처럼 우주를 향한 사람들의 꿈을 문화관광과 접목한다는 점에서 미국 케이프케네디 우주기지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고흥 우주항공 클러스터는 전라남도 단위에서 추진할 성격이 아닌 국가산업이다. 전라남도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이 산업을 고흥으로 유치했고 거기에다 교육과 문화관광을 융합하여 활용가치를 극대화했다. 우주항공산업도 접근하기에 따라서는 문화관광으로 가공해 그 산업영역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흥 우주항공 클러스터는 보여주고 있다.

공동체 정신을 되살린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상호부조하는 두레 정신이 있었다. 비록 1970년대 들어서면서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와중에 두레 정신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나 한민족의 유전자에 깊이 각인된 두레 정신은 여전하다. 전라남도가 추진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모내기철이나 추수 때 서로 품앗이 하던 아름다운 두레의 21세기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전라남도의 사회적 기업은 2013년 현재 97개 기업이 22개 시 · 군에 최소 1개 이상 자리 잡았다. 이 사회적 기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여성 같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8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복지 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그 취지와는 달리 정부 지원이 있더라도 적자를 면치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전남의 사회적 기업은 전라남도가 다각도로 시도한 판로 개척에 힘입어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있다. 한 예로 2012년부터 시행해온 수도권 대형 유통점 판촉행사는 전남도내 사회적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 행사에는 도내 70여 개 사회적 기업이 참가해 농수산물 가공품, 된장, 고추장, 모시송편, 양파즙, 장아찌 등을 팔아 연평균 5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녹색나눔' 이란 온라인 쇼핑몰 개설도 사회적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한 것이었다.

마을기업 역시 전남이 자랑할 만한 아이템이다. 2010년 발족 이후 2013년까지 총 93개 마을기업이 선정돼 자기 마을의 특산물 판매로 가계 소득을 높일 수 있었다. 부수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역동성 상실 같은 문제 등에 지역 주민 스스로가 해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

두레정신의 세 번째 모델은 협동조합이다. 요즘 협동조합이라는 말이 대세가 됐는데 전라남도는 일찍부터 협동조합의 중요성, 그 무한한 잠재력에 주목했다. 그래서 각종 협동조합 설립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전남도내 협동조합은 2014년 2월 기준 총 148개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농림수산업이 45개, 도 · 소매업이 43개로 전남 경제에 기반한 협동조합이 다수 설립되었다. 전남의 협동조합 육성의 원칙은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강화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 전남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각기 이름은 달라도 '수익창출'과 '나눔' 이라는 두 개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일자리가 늘었다!

침체된 국가경제 현실에서 '일자리 창출'은 구호만으로 이룰 수가 없다. 전라남도의 경우 취약한 경제기반 속에서 일자리 만들기는 더더욱 힘든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하나의 사례를 예로 든다면 2012년 전남의 청년층 고용률은 33.7%로 전국 평균 40.4%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남의 고용탄력성을 보여주는 지표도 2001년 이후 몇 해를 제외하고 줄곧 마이너스였다.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이에 전라남도는 다각적인 일자리 창출에 매달렸다. 일자리 창출 목표 공시제를 통해 일자리 만들기, 일자리 유지와 미스매치 해소, 직업능력 개발 같은 대책을 지역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발굴하도록 했다. 일자리 10만개 만들기를 1차 목표로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30만개까지 올리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목표를 놓고 처음에는 무리한 수치이다, 실패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으나 결과는 현재까지 성공적이다.

2010년 88만5,000명이던 취업자 수는 2014년 91만1,000명(목표 대비 100.1%)까지 증가하였고 일자리 수도 18만5,350개(목표대비 61.8%)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도 전라남도의 경우 일용근로자 감소가 뚜렷하고 상용근로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상용근로자만 놓고 보면 2010년 25만7,000명에서 2012년 26만5,000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실적은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전남 도내 22개 시·군이 고용관련 우수사례로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상을 받은 데서도 드러난다.

전남의 경제적 기반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에서 전라남도가 이룩한 지금까지의 성과는 희망적이다. 전남도민들과 공무원 등 관계자들의 노력이 컸지만 전남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영향이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즉 전남만의 차별화된 산업정책이 경제침체 속에서도 빛이 났고 순조로운 성장을 이끌어 내었던 것이다.

괄목한 만한 수출 증가세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전남에서 세계시장을 상대로 팔만한 물건이 거의 없었다. 대기업 공산품 제조 공장이 없고, 지역특산물인 농수산물은 국내 시장 소

비에도 힘겹기만 했다. 수출할 품목이 없으니 수출을 향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못 느꼈다.

초창기 수출의 미약세는 통계에서 나타난다. 2004년 전남의 수출액은 126억불에 불과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지난 10년간 수출액이 무려 228%나 증가한 것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14%선에 달해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양적 증가 못지않게 수출국은 149개국에서 170개국, 수출품목은 741개 품목에서도 1,462개 품목으로 늘었다. 특히 수출시장에서 평가할 대목은 기업규모면에서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9%에서 31%로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전라남도로선 고무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 2010년 수출 300억불을 돌파한 후 2011년 2월 24일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은 조촐했지만 그 의미는 남달랐다. 유럽발 재정위기, 환율, 원자재값 상승 같은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 이루어낸 쾌거였기 때문이다. 이후 2013년에는 414억불 수출을 달성했다.

그런데 수출 품목에서 농수산물의 약진은 더욱 눈에 띈다. 유자차, 배, 파프리카, 김치, 닭고기, 전복, 톳, 미역, 김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과거에는 톳이나 미역은 수출할 생각도 못 했던 품목이었다.

전라남도는 이렇게 수출이 늘어나자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수출 1,0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시동을 걸었다. 글로벌 중소기업 30개 육성, 16개국 교민과 현지 바이어 70명을 해외 수출 에이전트로 위촉, 마케팅과 홍보의 기술적 지원 같은 대책을 알차게 꾸려 1,000억불 수출액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수출 전남'으로 변모가 꿈만은 아니다.

레저산업도 전남이 앞서야…

전남경제의 부흥에서 빠뜨릴 수 없는 대목은 첨단제품, 신소재, 친환경 먹을거리 생산 못지않게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문화관광산업이다. 문화측면에서 전남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자원이 풍부하다. 큰 투자 없이도 구슬만 잘 꿰면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 여기에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레저산업이 본격화되면 금상첨화다. 솔라시도(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나

'은퇴자들의 천국'을 표방하는 은퇴도시 건설이 여기에 해당된다.

솔라시도와 은퇴도시 건설은 다른 지역에서 찾기 힘든 전남만의 사업이다. 솔라시도는 2025년까지 총 33.9㎢에 8조원(기반조성비 1조8,7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계획인구 3만8,000명이 정주하는 주거와 관광산업이 어우러지는 자족형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국내외 경기침체, 개발면적의 84%를 차지하는 간척지 양도 · 양수 문제로 인해 사업이 크게 속도를 내지 못했으나, 2013년 이후 기업도시법 개정과 간척지 양도 · 양수 이행담보개선 등 걸림돌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어 해외 투자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2013년 12월 솔라시도 기공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지구별 추진상황을 보면 구성지구는 1단계 공사를 시작하였고(공정률 7%) 삼호지구는 간척지 양도 · 양수 협약을 이미 마치고 2014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며, 삼포지구는 F1경주장이 1단계로 준공되었고, 2단계는 투자자 모집 중에 있다.

솔라시도 조성사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세계 최고수준의 휴양 · 관광레저도시로 조성될 것이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정부 · 사업시행자 등과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사업추진을 본격화하여 전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은퇴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인 '은퇴도시'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은퇴도시'는 전원생활의 쾌적함과 의료 및 상업시설 등 도시생활의 편리함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복합주거 단지를 말한다. 전남은 일사량이 전국 평균에 비해 10%, 수도권에 비해 20% 이상이 많고, 공기의 질도 이산화탄소는 수도권에 비해 10~20배 적은 반면 음이온은 5~20배가 많다. 또한 땅값이 저렴하고 먹을거리도 풍부해 은퇴도시의 미래는 매우 밝다.

714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자들를 유치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접근성, 지역조건, 지역발전성 등을 평가하여 은퇴도시 조성의 최적조건을 갖춘 46개소(내륙형 32, 임해형 6, 골프장 주변 8)의 개발후보지를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가 2013년 7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꾸준한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현재 3개소의 선도사업지가 조성되고 있다.

전남 발전 가시화로 인구 감소세 크게 줄다

전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프라, 재정의 빈약은 물론이고 정치, 사회적인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큰 성과를 올렸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는 전남 도민과 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발상의 혁신을 가져온 것이 가장 주효했다. 특히 발상의 혁신 사례로 도정의 모든 정책이 전남만의 자연적인 조건이나 환경, 문화를 접목해 소득 창출로 연결했다는 점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겠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는 몸부림이 오늘날 전남경제 회복세의 밑바탕이 된 것이다.

전남경제가 살아나면서 가장 먼저 찾아온 반가운 소식은 인구 감소세가 줄었다는 점이다. 이제 농어촌 곳곳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인구 감소세가 줄고 새롭게 터전을 잡은 귀농귀촌 인구가 늘면서 아이들 울음소리도 따라온 것이다. 머지않아 인구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다. 사람 사는 동네에 사람이 떠나가면 안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앞으로 전남도의 정책들이 다방면에서 성과를 나타낼 2020년께엔 인구가 다시 20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은 지난 10년의 도정을 통해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1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1. 국내외 투자유치 총력으로 지역경제 기반 구축

2004년 인구 200만명선이 붕괴되고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 전라남도는 일자리 창출을 도정 최우선 시책으로 선정하고 투자유치 분위기 조성과 체계적인 추진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에 진력을 다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업종별로 특화된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갔다.

1) 기업 2,000개 유치

투자유치 추진 체계 구축

전라남도는 2002년 서울사무소에 설치된 투자유치단을 2007년 전라남도 서울투자유치사무소로 통합함으로써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와 관광객 유치 및 친환경 농수산물 판촉 등 도정 홍보에 주력하였다. 이어 2008년 8월에는 투자정책관실을 투자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하여 국내외 기업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

도시 · 군 투자유치 활성화 협약 체결식

투자유치협의회	투자유치전문위원회
• 설치근거 : 국내 · 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조례 제3조 • 설치시기 : 2002. 12. 31. • 구 성 : 14명(당연직 4, 위촉직 10) – 당연직 : 행정부지사(위원장), 투자정책국장(부위원장), 관광문화국장, 건설방재국장 – 위촉직 : 도의원 1, 금융기관 1, 유관기관 4, 기업체 3, 교수 1 • 임 기 : 2년(연임 가능) • 운영실적 : 42회 '13년 2회, '12년 5회, '11년 6회, '10년 7회, '09년 6회, '08년 4회, '07년 3회, '06년 2회, '05년 1회, '04년 4회, ' 03년 2회	• 설치시기 : 2004. 9. 18. • 구 성 : 17명 – 위원장 1, 부위원장 1, 간사 1, 위원 17 • 임 기 : 2년(연임 가능) • 주요기능 – 투자유치 관련 도정정책 개발 · 평가에 관한 사항 자문 – 전남의 경제살리기 혁신에 관한 사항 자문 등 • 운영실적 : 25회 '04년 2회, '05년 2회, '06년 5회, '07년 2회, '08년 2회, '09년 2회, '10년 2회, '11년 2회, '12년 3회, '13년 3회

유치 기반 조성을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기 설립된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2012년에는 유럽에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하여 외국자본 투자유치 활동 뿐만 아니라 수출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투자유치협의회, 투자유치전문위원회, 투자유치자문관, 투자유치보좌관 등 민간 차원의 투자유치 자문 시스템을 도입해 좀 더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투자유치협의회에서는 투자유치 지원 조례 · 규칙 개정안, 투자유치 유공자 성과급 지급,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주요 현안 사항을 수시로 심의하였으며, 투자유치 관련 시책에 대한 자문과 정책 발굴 및 제안을 위해 전남정책자문위원회 투자유치전문위원회도 수시로 개최하였다. 또한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 48명을 투자유치자문관 및 보좌관으로 위촉하여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투자정보를 수집 · 활용하였다.

투자유치 총력 추진 및 성과

전라남도는 1단계 투자유치 목표로서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기업 1,000개 유치를 정하고 본격적으로 투자유치체제를 가동하였다. 도와 22개 시 · 군간 「기업 1,000개 유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전 공무원의 투자유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원에 투자유치 과정을 신설하고, 투자유치 마인드 함양을 위한 워크숍을 매분기 개최하여 투자유치 우수 사례, 투자 상담기법 등을 공유하였다.

투자기업공동 지원협의회 합동상담회 운영

구 분		금융지원	신용보증	정책자금	고용인력	수수료 지원
계	350기업 1,162건					
제1회 (09.6.24.)	35기업 112건	46건 1,856억	15건 1,056억	15건 246억	8건 365명	28건
제2회 (09.11.2.)	33기업 123건	44건 899억	29건 761억	9건 262억	19건 376명	22건
제3회 (10.4.29.)	39기업 144건	55건 1,082억	27건 749억	19건 440억	11건 290명	32건
제4회 (10.10.25.)	53기업 218건	88건 1,109억	29건 511억	39건 621억	23건 836명	39건
제5회 (11.7.26.)	46기업 165건	46건 841억	26건 644억	31건 406억	28건 446명	34건
제6회 (11.9.26.)	47기업 106건	32건 559억	22건 412억	25건 430억	18건 448명	9건
제7회 (12.5.4.)	49기업 123건	32건 588억	24건 508억	44건 615억	15건 329명	8건
제8회 (13.9.26.)	48기업 171건	53건 371억	53건 477억	38건 314억	18건 277명	9건

투자기업 고용지원협의회 운영

구 분	개최일	기업수	지원인력	
			사무	생산
계		99	763	846
제1회	2011. 3. 4.	30	245	328
제2회	2011. 10. 11.	45	430	201
제3회	2012. 3. 30.	24	88	317

투자유치 총력추진 다짐대회('10년)

읍 · 면 · 동 기업유치 위원 다짐대회('10년)

또한 전 도민의 투자유치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도내 295개 읍 · 면 · 동 3,592명으로 구성된 기업유치위원회를 통해 1읍 · 면 · 동 1기업 유치 운동을 추진하였다. 전 도민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투자유치를 추진한 결과, 2년 6개월 동안 1,096개 기업, 8조 9천억원을 유치하고 4만 2천명의 고용창출이라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성과를 거두었다.

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민선 5기 출범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력과 인구 200만 회복을 위한 기업 2,000개 유치를 2단계 목표로 설정하였다. 2010년 7월 9일, 도지사와 22명의 시장 · 군수가 「도 · 시 · 군 투자유치 총력추진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도 · 시 · 군 간 협조체계 강화, 투자환경 조성 공동대응 등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0년 7월 29일, 도내 295개 읍 · 면 · 동 기업유치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2,000개 유치 범도민 다짐대회」를 개최하여 범도민 총력추진 동참분위기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하였다. 2011년 2월에는 도와 시 · 군이 「기업 2,000개 유치 공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기관별 목표와 추진실적을 수시 점검하는 등 유치활동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기업 2,000개 유치 범도민 다짐대회('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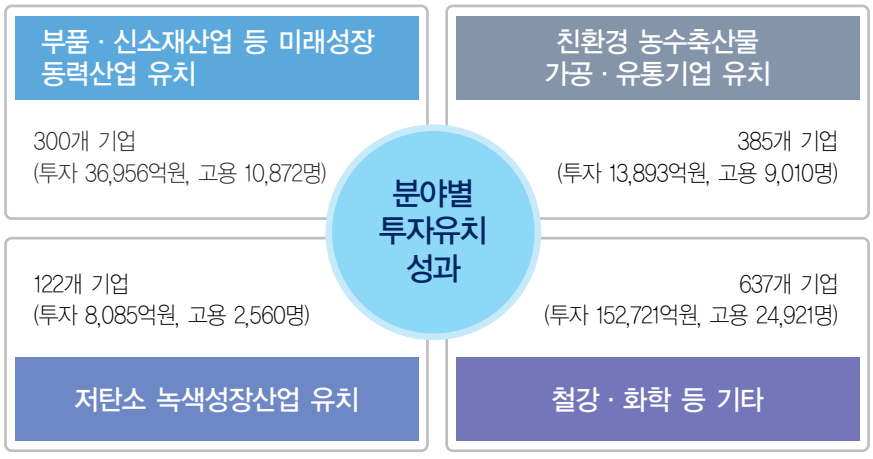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 워크숍('10년)

기업 1,000개 유치 목표 달성과 함께 '우리도 해낼 수 있다' 라는 자신감으로 다진 기반 위에서 투자 적지 전남을 부각시키기 위해 펼친 주요 활동을 보면, 투자기업공동지원협의회 합동상담회를 개최하고, 투자기업 고용지원협의회를 운영하였다. 또 각종 기업지원 보조금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수도권이나 타 시도에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 활동을 펼쳤다. 가령 2009년부터 아리랑 TV, YTN, MBN 등 TV 매체와 KTX 객실 모니터 등 다중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홍보 강화를 위해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홍보 광고도 병행하였다.

한편 기업이 원하는 공장입지를 적기 · 적소에 제공하기 위해 도내 개별 입지 233개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2011년 5월부터 기업투자 정보를 발굴하여 유치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투자유치 정보은행제' 를 시행하였다. 또한 수도권, 영남권 잠재투자 기업 및 호남 향우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SOC 확충 및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지역 산업 현장에 초청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할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권역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산업단지(장흥 바이오산단, 강진 환경산단, 화순 생물의약산단) 준공에 대비, 7개 기업유치 T/F팀을 운영하여 투자유치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높이고, 광주 · 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연관기업을 유치하고자 T/F팀(4단 25팀 109명)을 구성 · 운영하면서 에너지, 농업, 정보통신, 문화예술 분야별 투자 유치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유치 T/F팀 회의('14)



분야별 투자유치 성과

※ 2014. 2. 28. 기준

구 분	업체수	투자규모(억원)	고용규모(명)
계	1,444	211,655	47,363
미래성장동력산업분야	300	36,956	47,363
기계, 부품	191	6,367	10,872
조선, 기자재	60	11,558	6,772
신소재, 세라믹	13	10,410	1,857
의약, 관광레저	36	8,621	754
친환경 농수축산물 가공유통	385	13,893	9,010
식품가공, 식자재	344	12,664	8,467
농자재, 바이오 등	41	1,229	543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122	8,085	2,560
전기, 전자	101	4,420	1,980
신재생에너지	7	1,799	240
환경산업	14	1,866	340
철강, 화학 등 기타 분야	637	152,721	24,921
철강, 금속	298	87,193	10,724
화학	74	31,628	3,285
기타	265	33,900	10,912

이렇듯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잘사는 전남 실현을 위해 민선 5기에도 기업 유치를 역점 시책으로 추진한 결과, 국내·외 1,444개 기업 유치(약 21조원) 및 고용 4만 7천명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1,062개 기업과 28조 6천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였다.

지역발전주간행사 참가('10년)

지역발전주간행사 참가('11년)

관광자원개발 투자유치설명회('08년)

산학연중심대학 가족회사 CEO초청
투자유치 설명회('09년)

미국 투자유치 협약식('10년, 알버말社)

중국 기업인 초청 간담회('13년)

미국 투자유치 협약식('13년, 메인클래식보트社)

중국 투자유치 협약식
('13년, 전구경제기업합작중심)

일본 투자유치 협약식
('13년, 포스코캠텍社)

2) 특성화 산업단지 조성

전남의 산업 현황

전라남도는 1970년대 중반부터 여수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광양제철 등 광양만권에 두 개의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하였다. 이 지역의 제조업체 수는 전남 전 지역의 8.0%에 불과하지만, 생산액은 30.0%를 점유하고 있어 동부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권역의 산업입지 조성을 위해서 전라남도는 특화된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해 왔다. 전남 제조업의 생산액은 지난 10년('03~'13년)간 연평균 12.9%씩 성장하여 높은 성장추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공장용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공장용지 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업단지 개발을 본격화 해, 2008년까지 2년간 14.2%의 산업용지가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추가로 공급된 산업용지 면적은 6,611천㎡에 달한다.

산업단지 지정 현황

(단위 : 천㎡)

종류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2년		2013년	
	단지수	지정면적	단지수	지정면적	단지수	지정면적	단지수	지정면적	단지수	지정면적	단지수	지정면적
계	51	223,819	57	225,384	62	220,159	79	252,729	92	253,582	95	251,035
국가	4	181,129	4	181,561	4	171,700	5	173,858	5	173,922	5	173,927
일반	12	36,457	12	36,457	16	40,839	26	70,216	30	69,719	32	67,005
도시첨단	0	0	0	0	0	0	0	0	0	0	0	0
농공	35	6,233	41	7,367	42	7,620	48	8,655	57	9,941	58	10,103

민선 3기 출범 이전, 전남 서남부권의 산업경제구조는 단순 농수산물 가공 등 소규모 가내공업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조선산업의 유래 없는 호황과 더불어 대불국가산업단지와 삼호일반산단이 활성화되면서 조선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되었다. 또한 서남권 신산업지대 철도가 완공되고, 호남선 복선화(송정~목포),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 현황('13년 4분기)

(단위 : 천㎡)

시 군	산 업 단지명	지정일	지정면적	개발대상	조성현황			비 고
					조 성	미조성	조성율(%)	
합 계	36개소		241,513	149,670	93,317	56,353	60.4	
국가산단	5개소		173,927	82,665	75,865	6,800	91.8	
여 수	여 수	'74. 04. 01.	50,253	34,657	33,677	980	97.2	○
〃	삼일비축	'91. 08. 03.	4,157	3,777	3,777	–	100	■
광 양	광 양	'82. 04. 02.	96,405	29,029	25,434	3,595	79.0	○
영 암	대 불	'88. 07. 12.	20,887	12,977	12,977		100	■
함 평	빛그린	'09. 09. 30.	2,225	2,225	–	2,225	–	○
일반산단	31개소		67,005	67,005	17,452	49,553	25.8	
목 포	삽 진	'95. 04. 25.	219	219	219	0	100	○
〃	대 양	'09. 02. 05.	1,565	1,565	–	1,565	–	○
〃	세라믹	'09. 06. 05.	116	116	93	23	80.2	○
여 수	오 천	'79. 06. 14.	222	222	222	0	100	■
〃	율 촌 1	'92. 05. 13.	9,172	9,172	7,014	2,158	76.5	○
〃	율 촌 2	'97. 10. 09.	3,793	3,793	–	3,793	–	▲
〃	율 촌 3	'03. 10. 30.	9,762	9,762	–	9,762	–	★
〃	묘 도	'12. 10. 19.	368	368	–	368	–	○
순 천	순 천	'77. 04. 29.	583	583	583	0	100	■
〃	해 룡	'98. 04. 22.	1,592	1,592	350	1,242	22.0	○
나 주	문 평	'79. 10. 04.	323	323	323	0	100	■
〃	나 주	'94. 02. 02.	549	549	549	0	100	■
〃	미 래	'08. 07. 11.	1,785	1,785	96	1,689	3.3	○
〃	신 도	'11. 05. 02.	297	297	128	169	43.1	○
광 양	황 금	'03. 10. 30.	1,116	1,116	–	1,116	–	○
〃	신 금	'08. 03. 27.	398	398	398	0	100	○
〃	익 신	'08. 07. 11.	474	474	121	353	–	○
〃	세 풍	'11. 09. 02.	3,000	3,000	–	3,000	–	▲
고 흥	도 양	'08. 09. 26.	2,684	2,684	–	2,684	–	★
보 성	신소재	'11. 12. 27.	1,952	1,952		1,952	–	★
화 순	생물의약	'06. 01. 27.	755	755	755	0	100	■
장 흥	바이오식품	'08. 12. 12.	2,914	2,914	1,509	1,405	48.8	○
강 진	환 경	'08. 12. 12.	657	657	0	657	0	○
해 남	화원조선	'07. 07. 20.	2,058	2,058	51	2,007	2.5	○
영 암	삼 호	'91. 04. 30.	2,971	2,971	2,971	0	100	■
〃	용 당	'13. 05. 27.	351	351	–	351	–	○
함 평	동함평	'13. 05. 20.	735	735	–	735	–	○
영 광	전기자동차	'09. 05. 20.	1,652	1,652	1,652	0	100	■
장 성	나 노	'07. 09. 20.	902	902	–	902	–	○
진 도	군 내	'06. 11. 01.	685	685	418	267	61	○
신 안	조선타운	'09. 08. 05.	13,355	13,355	–	13,355	–	★

※ 개발대상 면적 : 해면, 유보지 제외, 조성면적 : 조성완료 입주가능 미조성 면적 : 조성중, 공사 미착수 포함
– 완료 10개소(■), 조성중 22개소(○), 실시계획수립 1개소(▲), 사업자모집 4개소(★)

전남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13년 4분기)

(단위 : 천㎡, %)

시 군	산업단지명	지정면적	분양대상	분 양 현 황				비고
				분양공고 (A)	분 양 (B)	미분양 (A-B)	분양률 (B/A)	
합 계	36개소	241,513		72,092	67,974	4,040	94.3	
국가산단	5개소	173,927	65,593	63,079	62,719	360	99.4	
여 수	여 수	50,253	26,116	25,210	25,203	7	99.9	
〃	삼일비축	4,157	3,442	3,442	3,442	-	100	
광 양	광 양	96,405	26,167	26,167	26,167	-	100	
영 암	대 불	20,887	8,260	8,260	7,907	353	95.7	
함 평	빛그린	2,225	1,608	-	-	-	-	
일반산단	31개소	67,005	43,308	15,847	12,300	3,547	77.6	
목 포	삽 진	219	169	169	169	0	100	
〃	대 양	1,565	1,082	-	-		-	
〃	세라믹	116	95	81	5	76	6.2	
여 수	오 천	222	131	131	131	0	100	
〃	율 촌 1	9,172	6,143	6,143	4,654	1,489	75.8	
〃	율 촌 2	3,793	2,432	-	-		-	
〃	율 촌 3	9,762	5,603	-	-		-	
〃	묘 도	368	250	-	-		-	
순 천	순 천	583	461	448	448	0	100	
〃	해 룡	1,592	1,185	211	211	0	100	
나 주	문 평	323	250	250	250	0	100	
〃	나 주	549	417	417	349	68	83.7	
〃	미 래	1,785	1,316	96	96	0	100	
〃	신 도	297	227	227	128	99	100	
광 양	황 금	1,116	788	-	-		-	
〃	신 금	398	293	293	160	133	54.6	
〃	익 신	474	369	-	-		-	
〃	세 풍	3,000	1,745	-	-		-	
고 흥	도 양	2,684	1,766	-	-		-	
보 성	신소재	1,952	1,254	-	-		-	
화 순	생물의약	755	398	219	219	0	100	
장 흥	바이오식품	2,914	1,308	1,216	152	1,064	12.5	
강 진	환 경	657	479	-	-		-	
해 남	화원조선	2,058	1,502	1,502	1,502	0	100	
영 암	삼 호	2,971	2,428	2,428	2,428	0	100	
〃	용 당	351	281	-	-		-	
함 평	동함평	735	504	-	-		-	
영 광	전기자동차	1,652	1,144	1,094	737	357	67.4	
장 성	나 노	902	624	383	122	261	31.9	
진 도	군 내	685	539	539	539	0	100	
신 안	조선타운	13,355	8,125	-	-		-	

무안국제공항 완공 등에 더해 대불산단~삼호산단간 목포 신외항 배후철도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등 지속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으로 주변 발전 여건이 크게 호전되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나주시,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등 광주근교권과 장흥군, 강진군 등 중남부권을 비롯해 전남 전 지역에서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산업단지가 다수이다. 전남 지역의 산업단지는 타 지역에 비해 지가가 싸고, 중국 등 해외 시장에 유리한 접근성 등 최근 확충된 사회간접자본을 바탕으로 물류비용이 낮아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남지역에서 지정승인을 받아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국가산업단지는 여수, 여수오천, 광양, 영암대불,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등 5개소에 이르며, 일반산업단지는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18개 시 · 군에 32개소가 있다. 전남 산업단지는 2003년 51개소 지정면적 223㎢에서 2013년 95개소 지정면적 251㎢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남의 미래를 이끌 주요 산업단지 조성 추진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는 광주 · 전남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지정을 건의하여 2009년 9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다. 4.08㎢(123만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6,06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주요 유치업종은 생물 · 의약, 신소재, 광산업, 자동차 부품 등이다. 빛그린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비율은 63.2%이며 특히 공공시설용지 비율은 31%에 달해 다른 국가산단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지를 개발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14년도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6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산단 조성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1조 8,70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5만 7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타 지역과 차별화된 친환경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2009년 전라남도, 영광군, (주)탑건설, (주)KCC건설이 공동으로 산단 조성을 추진하였다. 이 산단은 전국 최초로 차세대 전기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총 2,300억원을 투자하였다. 현재 (주)에코넥스(전기자동차)를 비롯한 4개 업체가 준공 이전에 분양계약을 완료하는 등, 준공 이전에 선분양 비율이 67%에 달했다. 2013년 1/4분기 현재 분양대상면적 1,094㎡ 중 770㎡가 분양 완료되어 분양률은 70.4%로 양호한 편이다.

장흥군에 조성될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일원 2.9㎢(약 88만평) 규모에 총 사업비 약 2,260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북측에는 888천㎡규모의 체육시설용지(골프장)와 남측에 산업단지 2,032천㎡ 조성을 목적으로 2008년 12월에 지정된 후, 2009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조성 중에 있다.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용지 40%, 상업 및 지원시설용지 2.5%, 주택건설용지 0.6%, 공공시설용지 14.4%, 체육시설용지 24.2%로 구성되며 특히, 공원 및 녹지 비율이 18.3%로서 법정 비율보다 훨씬 높게 확보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 산업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3) 외자유치

적극적인 외자유치 활동 전개

전라남도는 외국기업의 앞선 기술을 도입하고,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주요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자본유치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효율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①수시로 해외 현지를 방문해 비교우위자원을 비롯한 전남의 우수한 투자여건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현지의 잠재적 투자

외국기업 투자유치 현황

(단위 : 개/억원)

업종 / 지역	계		일반제조		신재생		화학, 관광	
	기업	규모	기업	규모	기업	규모	기업	규모
계	116	167,024	67	51,295	15	7,028	34	108,701
미 주	17	8,889	6	2,250	7	3,038	4	3,601
유 럽	12	14,530	6	1,375	1	100	5	13,055
중 국	29	22,470	20	4,835	–	–	9	17,635
일 본	13	9,520	7	1,020	1	120	5	8,380
기 타	45	111,615	28	41,815	6	3,770	11	66,030

기업을 발굴하고, ②세계적 박람회에 참가하면서 IR활동을 전개했으며, ③전남 지역에 실제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추가적 투자를 유도하면서, ④외국인 투자유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 10여년간 116개 외국 업체와 16조 7,024억원에 달하는 투자협약 체결을 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해외 순방 및 국제박람회 참가를 통한 투자유치

전라남도는 2004년부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해외 순방활동을 전개하였다. 해외 순방 시에는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과 우수한 여건을 활용한 관련산업 유치 전략을 펼쳤는데, 특히 깨끗한 자연환경과 수려한 해양관광자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과 섬·해양 개발사업을 위한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식품산업, 여수화학산업단지 등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 여건을 활용하여 외국기업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전남지역과 상호 연계 가능한 주요 국가의 지자체와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투자유치와 전남의 대외경쟁력 확보 노력을 병행하였다.

'04년부터 '13년까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10여개국에 16회에 걸친 해외순방을 실시하였고, 전남의 주력산업인 식품, 신재생에너지, 정밀화학 관련기업과 기업도시 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프로젝트 관련 투자자 등 세계 각국의 45개 기업과 25억 9,660만불에 달하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해외순방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뿐만 아니라, 2012여수세계박람회, F1경주대회,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전남의 대표적 국제행사에 대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전남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 성공적 행사 개최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전라남도는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처와 투자가를 발굴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아시아의 대표적인 부동산박람회인 홍콩부동산박람회에 참가하여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솔라시도), 섬 개발 등 전남의 주요 개발사업 프로젝트를 홍보하였으며, 많은 잠재 투자가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홍콩부동산박람회는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프랑스 칸느부동산박람회의 아시아 축소판으로 세계적인 투자가, 개발자 등이 대거 참가하는 부동산전문 박람회이다. 전라남도는 2008년도 홍콩부동산박람회에 참여하여

도지사 해외순방 현황

(단위 : 개/억원)

일 자		지 역	상담 기업	투자 협약	투자규모 (만불)	투자 설명회	비고
총 계			113	45	259,660	10	
'04	11.28.~12. 5.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7	2		1회 (20명)	
'05	11. 2.~11. 6.	상해, 절강성 (Port 세일)	4	4		1회 (150명)	
	7.22.~7.27.	미 국					
'06	9.11.~9.22.	유럽, 중동	3	1	6,000		
	12.4.~12.11.	미 국	8	3	6,000		
'07	7.15.~7.19.	북경, 상해	9	5	4,160	1회 (150명)	
'08	4.22.~4.24.	중 국	5	5	10,000	1회 (73명)	
	5. 4.~5.14.	미 국	12	1	3,000		
	9.27.~10. 3.	이스라엘, 독일,프랑스, 네덜란드	11	3	–	업무협약 2	
	11.18.~11.21.	중국 심천, 홍콩	9	6	12,000	1회 (70명)	
'09	6.16.~6.19.	일본 도쿄	7	2	800	업무협약 2	
'10	9.26.~10. 3.	미 국	7	3	8,000	업무협약 3	
'11	4. 3.~4.10.	독일, 덴마크	7	3	–	1회(8개社)	
'13	3.18.~3.22.	일본	10	3	51,700	2회(63명) 업무협약 1	
	6.17.~6.22.	중국	8	2	150,000	2회 (72명)	
	11.11.~11.17.	미국	6	2	8,000	업무협약 2	

전남 세일즈에 나서 전남을 투자매력지로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부동산박람회 뿐만 아니라 해외 기계산업 관련 기업과 자본가의 투자유치 일환으로 독일 하노버산업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세계 주요 풍력업체를 대상으로 풍력발전을 위한 최적의 자연 입지적인 특성과, 풍력발전 산업의 육성을 위한 5GW프로젝트 및 연관단지 등의 투자여건에 대한 홍보를 통해 지멘스, 베스타스 등 세계적인 풍력기자재 업체들의 5GW프로젝트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외투기업 사후관리

전라남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신기술 도입과 고용효과가 큰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개별형 외국인투자단지를 지정하여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지난 10년간 전라남도에서는 대규모 관광리조트를 개발하는 ㈜일상오션리조트 등 6개의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한편 전남에 5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도지사를 포함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외국인 투자기업의 PM으로 지정, 분기별 1회 이상 기업을 방문하여 각 기업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주력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사후관리 활동 결과 대림산업, 한화석유화학, 휴켐스, 금호석유화학, 한국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 현황

업체명	지정일	투자지역	규 모	업 종
㈜일상오션리조트	'07. 11. 20.	여수시	116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지업
(유)한국쓰리엠	'07. 12. 27.	나주시	5천㎡	LCD 등 제조
오일허브코리아 여수(주)	'10. 12. 30.	여수시	350천㎡	액체화물 보관
대산MMA(주)	'11. 5. 20.	여수시	70천㎡	석유화학제품 생산
닛소남해아그로	'12. 10. 5.	여수시	8천㎡	농작물 보호제 원제품 생산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주)	'13. 12. 12.	여수시	150천㎡	합성고무제품 생산

바스프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증액 투자를 이끌어냈다.

또한, 효율적인 외자유치와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IK(Invest Korea)를 활용하여 전남의 최신 투자환경과 투자정보를 수시 제공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 EUCCK(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4) 위기를 기회로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에 유럽발 재정위기까지 더해져 세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 외 기업활동이 위축되어 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와 열정이 필요하다. 전라남도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투자유치에 있다는 판단으로 2004년부터 투자유치 전담 조직을 만들어 도 산하 전 공직자가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투자유치에 나섰다. 그 결과 '14. 2월 현재까지 국내외 기업 4,097개 업체, 44조 2천억원을 유치해 14만 6천명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1,849개 기업과 95조 6천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지난 10여년 동안 전남에 투자를 결정한 외국인 투자규모가 116개 업체 16조 7,024억원에 달했다. 다만, 투자를 결정한 외국투자기업이 기업경영환경의 변화, 글로벌 경기 변동 등으로 인해 투자협약 이후 실제투자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일부 있었다. 향후 투자의향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초기 접촉단계에서 투자진정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증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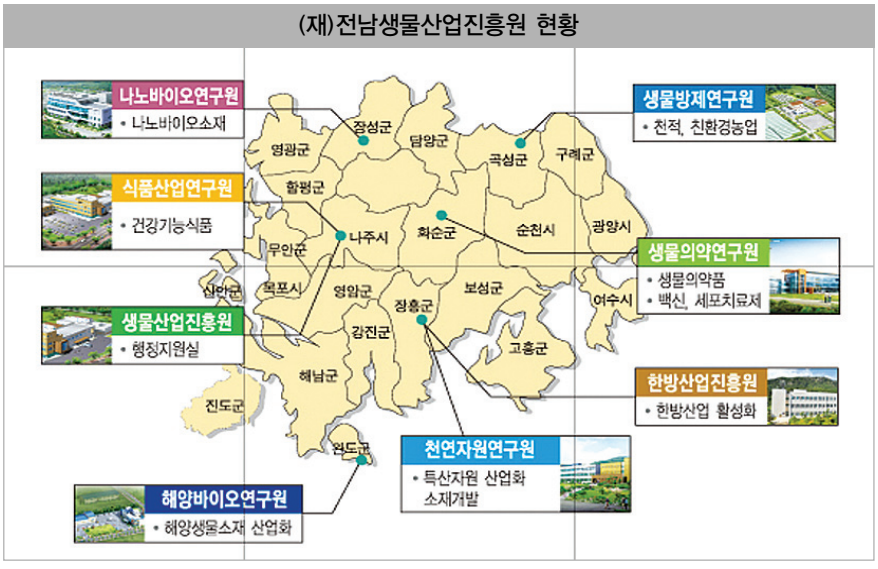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에 따라 지난 '08년까지 매년 많게는 4만명에서 적게는 1만명씩 대폭 줄어들던 인구는 2009년 6천명대, 2011년 이후 4천명대로 그 감소폭을 줄일 수 있었으며, 2013년 말에는 최저 감소폭인 2천명대로 크게 낮출 수 있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외 경제가 어려워지는 큰 시련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수축산자원 및 친환경에너지원 등 전남의 특산자원과 비교우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치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2. 전남 생물산업, 미래 성장동력 기반 마련

전남은 1·2차 산업 위주의 산업여건을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초 소재로 활용 가능한 농수산업, 임업, 축산업과 연계한 「생물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해 왔다.

1) 생물산업 육성 첫걸음 딛다

2000년 4월 '전남 생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권역별 지역산업발전계획' 타당성 조사(산업연구원)를 근거로 2002년에 (재)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을 설립했다. 초기에 나주 식품산업연구센터, 화순 생물의약 연구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천연자원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 생물방제센터, 나노바이오, 해양바이오산업 등 7개 사업에 총 1,824억원을 투자하여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고, 2013년 8월 재단을 진흥원 체제로 개편하여 전남의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등을 활발히 펼쳐 나가고 있다.



도내 6개 시·군에 7개 생물자원 연구기관 설립

2) 식품, 의약분야 특화센터 구축

전남지역에 최초로 설립된 바이오특화센터는 2006년 4월에 완공된 나주의 식품산업연구원과 2007년 8월에 완공된 생물의약연구원이다. 식품산업연구원은 기능성식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의 시제품개발 및 시험생산을 위한 공장 및 연구시설을 구축하였고, 건강과 식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의 기호 다양화 추세에 따라 2008년 4월부터 GMP지정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최신장비의 임대, 위탁생산, 식품위생검사, 유기가공식품 인증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유치기업은 (주)켐포트 등 17개 기업이 입주하여 있다.

나주 식품산업연구원

HACCP 과채류 착즙 라인

국내 유일의 백신특구인 화순의약산업단지내의 생물의약연구원은 2007년 8월 연구원 건물을 완공하고, 의약품 CMO(위탁생산) 등을 위한 장비를 구축한 후 국내 최초의 백신전문생산단지로 자리매김하였다. 2008년 12월에 완공한 독감백신원료생산시설은 2009년 신종플루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 때 국민건강의 파수꾼 역할을 하였고, 바이오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온 국민에게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최근 5년간 국내에서 개발 중인 19개 품목백신 중 탄저백신, 백일해백신, 여성자궁경부암백신, 수의백신 등 6종의 미생물 유래백신의 비임상/임상시료를 생산하고 있다. 유치기업은 ㈜듀얼라이프 등 8개 기업이 입주하여 있다.

화순 생물의약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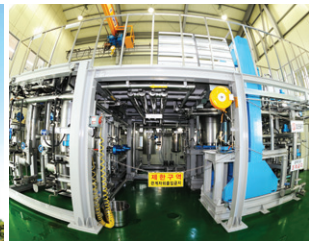
미생물발효라인

3) 나노바이오, 친환경 농자재분야 특화센터 구축

2006년 나노생물소재 실용화 및 생물적 방제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래, 나노바이오연구원(장성)은 2010년 3월, 생물방제연구원(곡성)은 2009년 5월 구축되었다.

나노바이오연구원은 천연물 소재의 친환경 추출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초임계유체추출 시험생산장비와 나노융합의료부품소재 생산에 요구되는 GMP시설이 필요한 클린룸을 갖추어 나노바이오기술 실용화 연구, 창업보육, 기업유치,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상동맥용 스텐트 국산화 사업, 펩타이드, 나노조영제 등 고부가가치 의료소재분야로 사업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유치기업은 애니젠(주) 등 23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장성 나노바이오연구원


초임계유체 생산장비

곡성 생물방제연구원

5,000L 미생물 배양 시스템

생물방제연구원은 천적, 유용미생물, 천연물 등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용 친환경 농자재와 병해충에 저항성이 강한 고품질의 신품종 종자육성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장비, 창업보육실, 교육시설, 시험생산단지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잔류농약분석 및 친환경 농자재 약효 약해 분석 사업 등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유치기업은 ㈜현농 등 28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3) 천연특산(토종)자원연구 특화센터 구축

천연자원연구원과 한방산업진흥원은 장흥 안양면에 소재한 옛 남도대학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09년 3월에 각각 설립되었다.

천연자원연구원은 전남 특산 생물자원을 본격 연구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 기능성 소재 발굴 및 천연물 의약품 개발 등을 통해 천연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의 초석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육성을 위한 장비지원, 공동연구, 인력양성, 기업 보육공간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원 설립 이후 '황칠나무 산업화', '멀꿀 잎을 이용한 관절염 치료제 개발' 등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내놓기 시작하였다. 유치기업은 엠제이바이오(주) 등 28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장흥 천연자원연구원

초고속 생리활성 검색시스템

한방산업진흥원은 한약재 자원의 재배 보급 및 전남 토종 생물자원의 발굴과 등록사업을 하고 있으며, 한약재 품질검사와 품질인증을 통해 한약재의 질적 개선과 안정성 확보에 노력함으로써 국민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2009년 2월, (구)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수입한약재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하였고, (구)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약용 작물종자보급센터'를 구축하여 우수 약용작물 및 멸종위기 종자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장흥 한방산업진흥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한방소재 건강기능식품 개발, 한방화장품 개발, 천연물 신약 개발 등을 통해 피부용 및 미백개선 화장품 개발기술 이전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유치기업은 ㈜향아식품 등 10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4) 전남 해양생물분야 특화센터 구축

바다에 인접한 완도에 소재한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1차 가공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산업에 가공기술을 접목시켜 해양바이오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0년 7월에 완공되었다.

또한, 해양생물산업의 역량제고와 산업화기술개발 향상을 위해, GMP생산시설 및 실험 · 분석장비 지원, 입주기업 서비스 등 다양한 기업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종 해조류와 전복 등과 같은 특화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의 완공으로 전남 생물산업클러스터의 기반 구축이 완성단계에 이르렀으며, 다양한 특화센터들을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으로 한데 묶어 명실상부한 바이오클러스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완도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5) 전남 생물산업의 중심 지원기관으로 역할 수행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지금까지 676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수주하여 194건의 중앙정부 과제사업을 수행하였다. 매년 37건 이상의 신규과제를 산업부 등으로부터 수주하고 있으며, 동 과제들은 대학의 기초연구 개발과 달리 기업과 연계한 제품 개발과 상품화까지 목표로 하고 있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현재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는 모두 112개 기업이 입주하여 진흥원의 연구 ·

생산인력과 함께 제품개발과 생산지원을 하고 있는 바 이들 기업의 총 매출액이 2013년 기준 2,691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917명을 고용하고 있어 지역 생물산업의 기반역할을 하고 있다.

매년 진흥원 산하 각 연구원은 농업과 관련기업 지원을 위해 2,500여건의 친환경농산물 및 농자재 시험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이나 시험분석 등도 1천여건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여건의 한약재 품질검사 뿐만 아니라 2천여명의 기업직원 및 구직자 교육도 시행하고 있어, 진흥원이 없었을 경우 다른 지역이나 수도권까지 가서 분석결과를 받아야 했던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향후 진흥원은 기존의 생물산업 육성과 더불어 항노화 뷰티케어, 천연물 기반 생체 접합형 의료용 바이오소재 개발 등 융복합소재 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도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3. 사회적기업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 둔화 및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창출 능력은 감소한 반면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해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 · 시행하게 되었으며, 전라남도 2009년 전국 최초로 「전남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본격적으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2010년 말「사회적기업 육성 5개년 계획('10~'14년)」을 수립해 (예비)사회적기업 100개 육성과 1,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매년 초 시행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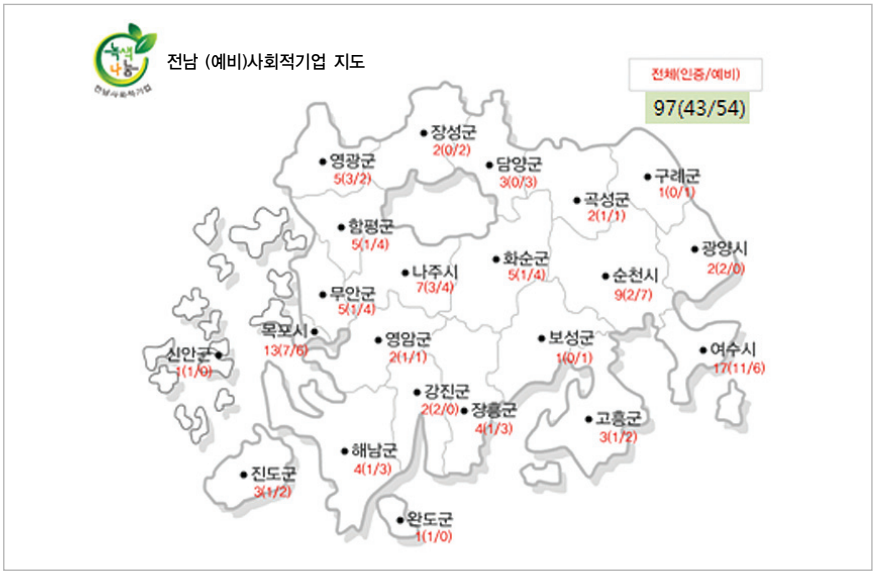
2012년부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연간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2012년 54개, 2013년 33개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97개 (예비)사회적기업이 22개 시 · 군에 최소 1개이상 분포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전남 사회적기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결혼이주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연간 평균 800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 고용복지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14년 상반기에 25개 정도의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받게 될 경우, 민선5기 공약인 사회적기업 100개 육성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남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 정착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사회적기업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업들이 일자리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판로개척, 제품 유통망 구축 등 지속가능한 성장에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전남 사회적기업의 주요 목표는 자립기반 및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정책에 초점이 모아졌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라남도의 지원정책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사회적기업 육성 초창기인 2010년에는 전라남도가 추진한 각종 축제, 행사 참가 및 판촉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효과는 나타났으나, 그 효과가 매출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결국 전라남도는 판로개척의 새로운 대안으로 2012년부터 "수도권 대형 유통점 판촉행사"를 기획해 도내 사회적기업과 경기, 강원, 전북 등의 사회적기업을 연계해 도시민을 타깃으로 성과를 거두었다.

실제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수도권 대형유통점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호남향우회 인사를 초청해 전남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및 매출증대 효과를 거두었다. 연간 10회(50여일) 정도로 진행되는 수도권 대형유통점 판촉전에 도내 70여개 사회적기업이 참가해 농산물가공품, 된장, 고추장, 모싯잎송편, 양파즙, 재활용가구, 짱아지류 등을 판매하여 연평균 5억원 가량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유통점 판촉('12년)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유통점 판촉('13년)

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전라남도는 2012년부터 정부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전남형 예비사회적 기업들에 대해 노무, 회계, 경영관련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과 2013년 '친환경유기농 무역박람회' 등 전국단위 박람회에 참가하여 시야를 넓히고 시장 대응력을 강화시켰다. 아울러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즐거운 주말!, 따뜻한 연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남 (예비)사회적기업의 농특산물 위주의 테마를 구성해 전남도청내 금요장터를 개설하였다.

특히 전라남도는 제품품평회를 개최해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컨설팅 전문가와 참여기업간 일대일 품평으로 제품 품질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제품의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컨설팅 등을 실시해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전남사회적기업 전용 온라인 쇼핑몰 「녹색나눔」을 개설해 개별기업의 홈페이지 및 쇼핑몰을 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정보 및 시장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매출증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은 도내 사회적기업 모두(97개)가 입점한 가운데 주력상품 500여종이 등록되어 전남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일반소비자 및 공공기관의

전남 사회적기업제품 품평회('13년)

온라인쇼핑몰 "녹색나눔"개장

온라인 쇼핑몰 "녹색나눔" 메인화면

친환경 유기농 박람회 참석('13년)

접근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전라남도는 2010년부터 매년 '전남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를 개최해 전남(예비)사회적기업 100개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임직원 및 시 · 군 담당자가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 행사에서는 매년 공기업 등 5개 이상 기관과 (예비)사회적기업간 MOU를 체결하고 있으며, 현재 전남우정청 등 20여개의 대기업 · 공기업 등이 도내 사회적기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전라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은 지역의 비교우위 자산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라남도의 역점사업인 행복마을, 마을반찬사업 등과 연계하여 로컬푸드, 농어촌 체험 등 농어촌 생태체험 중심의 특화사업과 연계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에도 전남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사회적기업의 제품생산도 지원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4. 마을기업

마을기업은 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 경제적 역동성 상실 상황에서 지역주민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결하는 사업이다. 안전행정부는 지역공동의 문제해결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0년 11월부터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마을기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2010년 17개, 2011년 23개, 2012년 20개, 2013년 34개 등 총 94개의 마을기업을 선정해 총 66억원을 투입하는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라남도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이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예컨대, 마을기업은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해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이 행 · 재정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공동체에 기초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라남도는 마을기업 컨설팅과 우수사례 창출에 힘을 마을기업 담당자 교육과 마을기업 경영관리, 워크숍 등 체계적인 교육과 경영컨설팅 기관을 지정하여 조직 · 운영 · 회계 · 마케팅 등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한 성공한 마을기업의 경영노하우를 공유하는 마을기업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 개최와 마을기업 제품 판매 · 전시회 등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지역희망, 마을기업"이라는 주제로 순천만정원박람회장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에서는 전국 159개 마을기업이 참여해 자신들이 생산한 다양한 상품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박람회는 단순히 전시나 판매 행사를 넘어 공동체 복원과 지역 활성화의 대안 중 하나인 마을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무엇보다도 박람회에는 45천명이 방문해 1억 5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전라남도 마을기업의 위상과 순천만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전라남도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강화가 선결과제인데, 이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마을 공동체가 점차 붕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기업은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민들이 공공의 관심사에 함께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즉, 지역을 떠난 주민들이 고향에 돌아와 마을기업을 통해 생활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안겨주고, 고령 주민들에게 지역을 위해 소일거리와 함께 소득을 창출하는 생산적 복지와 연계되고 있다.

앞으로 전남도는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을 매년 20개씩 육성할 계획이며, 이는 지역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 지역공동체 활성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아닌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은 일자리와 소득 뿐만 아니라 마을의 화합과 번영을 도모하는 지역사회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

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구성원이 하나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5. 협동조합

최근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등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협동조합의 결성 및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다. UN은 글로벌 경제위기시 협동조합이 구조조정의 최소화, 빠른 경영정상화,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는 경제안정 효과와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해 결의문(136호)을 통해 2012년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 2013년 12월부터 기획재정부 등 정부합동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매월 4~5백개 협동조합 법인의 신설 또는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당초 5년내 1만개를 전후로한 협동조합 신설 전망을 뛰어넘어 훨씬 빠르게 협동조합이 우리 주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미 개별법으로 설립된 농협, 수협, 생협 등 여타 협동조합과 다른 면모를 보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두 가지 특징은 전남 협동조합 설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는 기존 민법과 상법에 따른 법인 외 협동조합 법인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금융,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5인 이상이 모여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한데 따른 것이다.

전남지역 협동조합은 2014년 2월 기준 총 148개로, 목포 14개, 여수 17개,

순천 20개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다. 분야별로는 농림수산업이 45개, 도·소매업이 43개로 많고 유형별로는 사업자가 124개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의 협동조합 육성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방점이 찍혀있다. 즉,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수익창출이라는 '이윤'과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을 통한 '나눔'이라는 2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남도가 그간 추진한 협동조합 육성사업은 매우 다양하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제공, 협동조합 관련 외국사례를 공유하는 국제행사 개최, 지역에서 우수한 협동조합 발굴이 대표적이다.

전라남도는 도민들이 협동조합 설립시 언제나 가까이에 두고 활용할 수 있는 협동조합 안내 핸드북 발간을 비롯해 각종 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아름다운 협동조합 창업하기'라는 홍보물을 제작해 협동조합의 탄생, 개념에서부터 설립, 운영, 해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소개를 통해 도민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모하고, 실제 설립·운영사례, 신고 관련 서식, O&A 등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2012년과 2013년 사회적경제의 비전 및 전략공유를 위해 국제적인 석학 및 기업대표를 초청해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12년에는 미시건주립대 전문가와 함께 사회적기업의 세계적 동향과 전남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의하였고, 2013년에는 대표적인 협동조합 산실인 이탈리아 협동조합과 함께 정보 공유 및 나눔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예컨대, 2013년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육성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는 이탈리아 모데나권역 협동조합 임직원이 참석해 자국의 선진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과 뜨거운 대화를 이어갔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이 농촌모범마을로 언급한 전남 나주 화탑영농조합은 2012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마을 단위의 대표적 협동조합 사례이다. 화탑영농조합은 귀농한 마을 대표의 주도로 주민 및 출향 인사들이

광주매일신문 2013년 7월 3일 (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발전방안 논의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2일 도청을 방문한 이딜리아 모데나 레가쿱(협동조합)의 잔루카 베리샤니 사무총장과 모데나 권역 사회적협동조합 연합체 비앙키 마리아 볼디니 대표와 환담하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도 제공

설립한 조합으로, 한우직판장을 열어 매출 대박, 훈훈한 공동체 정신으로 뭉쳐 농촌체험 및 소득창출을 통한 지역공동체 복원의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

그럼에도 전남 협동조합이 앞으로 추진할 과제도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간 협력, 협동조합지원센터 활성화, 시·군 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 등 제도적 지원, 협동조합 기금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전남은 인구 및 일자리의 지속적인 감소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섬, 친환경 먹거리 등을 이용한 은퇴자 도시, 해양관광, 친환경 농업 등 전라남도 특유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협동조합 설립·운영 및 연계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6.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전남지역 중소기업은 임금, 학력, 산업별 미스매치로 고통 받고 있다. 전남지역 대학 졸업생들은 높은 임금과 안정된 직장, 그리고 다양한 문화 및 복지혜택을 이유로 타지로 이동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해 지역의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이다. 더욱이 전남지역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2013년 기준 33.7%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은 당초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였으나, 전남도는 고용노동부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즉, 폭넓은 기업 지원과 청년층 취업의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좀 더 완화하여 많은 청년 취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2010년 하반기부터 만18세 이상 39세 미만의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턴 근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인턴으로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청년실업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예컨대, 전남도는 2012년 사업비 12억원(도비 6, 시 · 군비 6)을 투입해 도 및 시 · 군 일자리센터 또는 시 · 군 관련 부서에서 도내 소재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 중소기업 중 참여기업을 공모 선정한 후, 청년 미취업자를 모집하고 청년이 기업을 선택하여 구직 신청을 하고 기업이 자체 채용절차를 거쳐 인턴을 채용한다.

이들 채용된 인턴은 3개월간의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찾게 된다. 또한 사업장 및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5인 이하 사업장도 심의 후 인턴채용이 가능하며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채용할 수 있다. 기업이 인턴을 채용했을 때는 인턴 한 사람당 8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해주며 정규직 전환시에는 추가로 6개월을 지원하였다.

나아가 청년인턴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인턴에게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는 시점부터 월 20만원씩 6개월간 취업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인턴사업으로 385개 기업이 764명을 채용해 54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채용에 대한 부담 경감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와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청년인턴사업을 발굴해 추진 중이며, 대표적으로 2009년 실시한 '소고기이력추적제 사업 청년인턴제'가 바로 그것이다.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 소고기이력추적제의 조기 정착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축산분야 일자리창출 대책의 일환으로 19명의 청년인턴을 소고기이력추적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행기관에 배치하여 귀표부착 및 전산등록 업무를 지원하였다. 업무 특성을 고려

해 축산관련 학과 졸업자를 우선하고 농촌지역 현실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이상 학력소지자로 채용을 하여 5개월간 고용하였다. 또한 위탁기관의 관할 지역내 거주자를 우선하며, 희망자가 없을시 인접지역 거주자 중 희망자에 한해 전남도에서 적격자를 선정 위탁기관에 통보 · 배치하였다.

이 사업은 참여 청년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다. 청년들은 인턴기간 동안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훈련을 쌓아 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참여중소기업의 반응도 매우 적극적이다. 농촌에 위치한 소규모 기업은 젊은 직원 채용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을 통해 구인난을 해소하는 등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이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되어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컨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과 관련하여 일자리 420여개를 확보하여 농경지 DB 구축지원 등 4개 분야에 배치하였다.

전남의 미래는 청년층의 지역 중소기업 취업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키우는데 있으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심각한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의 미스매치 해소에 큰 성과가 있었던 동 시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7. 대학벤처 동아리, 모의투자대회

전라남도는 대학생들에게 경제 마인드 함양과 건전한 투자능력 향상을 위해 2005년부터 “대학생 모의투자대회”를 개최해 경제활동에 주체가 될 젊은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의 이러한 노력은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실시된 것으로 청년실업 및 심각한 고령화 사회에 돌입한 전남의 현실 속에서 자본과 산업의 관계를 이해하고 기본 경제 마인드 함양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도내 대학생 및 도내 고교출신 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올바

른 경제관을 형성 국 · 내외에 실물경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 자문회사 설립 등으로 연결시켜 지역금융 부문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총 3,817명이 참가한 대학생 모의투자대회는 주식, 선물 · 옵션, 외환분야 등 3개 분야에 실전과 같은 모의투자를 통해 경제마인드를 함양하고 건전한 투자능력을 제고하여 졸업 후 취업 및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데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모의투자대회는 경제인협회,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추진되었고, 수익률 우수자에 대한 선발 · 시상 등이 이어졌다. 2013년 대회는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 대신증권(주) 후원으로 6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8주간에 걸쳐 주식, 선물 · 옵션, 외환분야에 141명 대학생이 참여하였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4명에 대한 시상식은 10월 4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상황실에서 개최되었다.

모의투자 참가수 및 수상자

(단위 : 명)

년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참가수	178	326	560	515	548	619	722	208	141
수상자	7	9	7	9	9	9	8	9	4

모의투자대회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반응은 해가 갈수록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013년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목포대학교 김근형 학생은 주식분야에서 수익률 199%를 달성하였고, 순천대학교 김지영 학생이 외환거래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이들 수상자에게는 시상금과 대신증권 입사지원시 서류전형 면제 특전이 주어졌다.

대회에 참여한 금융보험학과 재학중인 학생은 과 특성상 학기 중에 선물옵션

을 배우게 되었고 모의투자대회라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배운 것을 이론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실전에서 경험을 쌓기 위해 참가하게 되었다"고 참가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학생은 "경제신문 등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 등을 파악하고 매도와 매수시기를 결정했던 것이 잘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장이 계속 하락하거나 계속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예상수익률을 미리 정하고 기다린 것이 중요했다"면서 대회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전라남도 대학생 모의투자대회는 국내외 투자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의 올바른 경제관 형성과 건전한 투자기법을 배양하고, 나아가 도내 대학생들의 금융기관 진출에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즉, 대회를 통해 금융경제의 실전적 체험과 경제마인드를 높이는데 보탬이 되고, 재미와 유익한 실전경험을 쌓아 시상금도 받고, 졸업 후의 경제활동과 취업에 도움을 주는 등 도내 대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다.

8. 일자리 취업박람회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향상은 국가적 현안인 동시에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과제다. 특히, 이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 및 고용시장의 악화로 인한 다수의 실직자 증가 문제 발생에 따라 가장 중요한 도정 시책이 되었다.

전남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이나 농어업회사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도시의 젊은 청년들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구직자와 구인자의 비대칭적인 인력수급의 불일치로 인해 기업은 기업대로, 구직자는 구직자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업종별, 대상자별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차원의 박람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라남도는 이러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2009년부터 『전라남도 일자리 취업 박람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09년 순천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총 8회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1,500개 기업이 참여한 현장채용 및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을 통해 1,782명의 취업 기회를 얻었다.

일자리박람회 개최 현황 및 실적

연도별	참가기업 (현장참가)	취업실적 (명)	소요예산 (백만원)	개최장소	비 고
2009	203(29)	285	95	순천	
2010	384(102)	490	160	여수, 목포	2회
2011	220(70)	291	80	순천	
2012	300(85)	503	104	목포, 광양	2회
2013	393(98)	216	88	나주, 순천	2회

일자리 취업 박람회에서 도내 대기업을 비롯한 우수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농법인, 영어법인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모집하여 취업 희망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기업에게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내 구직자에게는 역량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의 일자리 취업박람회는 여타 취업박람회와는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첫째, 지역 거점별로 박람회장을 설치해 구인, 구직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민 · 관 · 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취업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구인 · 구직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박람회 참가기업은 행사장에서 채용 담당자와 구직자 간 일대일

박람회장 전경

채용면접

현장 면접은 물론 이미지 컨설팅, 면접 컨설팅, 직업심리검사 등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도내 대기업 취업 상담도 진행함으로써 구직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이 당면한 일자리 취업박람회 과제는 박람회의 성과 제고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안팎에서 제시되고 있다. 즉,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취업 박람회가 되기 위해서 구인업체 측면에서는 현장채용 가능 유망기업 참여 유치 및 구체적인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인사 책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용률 향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인 · 구직자 간의 만족도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구인 · 구직을 위해 기업체 면접 · 채용부스는 확대하고 이벤트, 부대행사를 최소화하며,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농 · 수 · 축산분야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 및 농어업회사가 겪고 있는 구인난 문제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9. 「우주항공 클러스터」 조성

우주항공산업은 첨단산업이자 기술선도 산업으로서 높은 부가가치, 고난이도의 첨단기술로 인해 타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가치 산업이다. 이러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타 지역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전남지역의 우주 기반시설(우주 · 항공센터)을 충분히 활용하고, 이를 한곳에 집적화한

나로호 발사 장면

나로우주센터 발사체 조립 과정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여타 산업들과 연계하여 발전시키자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것은 전남지역 발전을 넘어서 국가발전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전라남도의 우주항공산업은 전국대비 산업비중이 낮은 데다 핵심 주도기업이 없다는 취약점이 있지만 나로호가 발사된 나로우주센터에 발사체 관련 기반시설 및 관련 시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항공분야에서는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로 확장 중인 고흥항공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더불어 우주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한다면 우주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타 산업과의 시너지효과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꿈은 모든 도민들이 힘을 모아 우주시설 인프라인 나로우주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인 후에야 가능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로우주센터는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우리의 땅에서 발사하기 위한 국가적 목표 달성의 전초기기로서의 의미에서 시작됐다. 우주센터 건립을 위한 장소 선정 과정에서 1차 후보지 11곳(전남 6, 경남 3, 경북 1, 제주 1) 중 전남 고흥과 경남 남해 2개소로 후보지가 압축된 상황에서, 수많은 후보지 중 고흥 지역으로 우주센터가 선정되었던 것은 발사기능 방위각, 낙하지점 안전성 확보 등 기술적인 검토도 있었지만 도민들의 우주센터 유치에 대한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우주센터 유치에 대한 열망은 항공센터 유치에도 이어져, 전국을 대상으로 항공센터 입지를 선정하고 있을 때, 우수한 공역 보유, 지자체의 강력한 유치의사 표명 등으로 현재의 항공센터를 유치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전라남도가 유치에 성공한 우주항공 기반기설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고자 2009년도에 「우주항공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3대 분야(우주 · 항공 · 문화관광), 14개

고흥 항공센터 시설 및 장비

분과, 18개 사업을 발굴하였다. 이 중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으로는 3,314억원이 투입된 우주센터 1단계 사업, 고흥만 간척지에 위치한 항공센터를 비롯하여 우주과학관, 국립청소년체험센터, 우주전망대, 우주천문과학관 등(합계 1,315억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우주센터 2단계 확장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6,699억원)이 추진 중에 있거나 국가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2012년부터 추진된 산업부 항공센터 2단계 확장사업으로서 비행시험평가 기반 확충사업이 2016년까지 200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구축의

비행종합시험 인프라 개발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항공기 비행종합시험 인프라 개발 구축사업이 2017년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285억원이 투입되어 추진 중이다. 이러한 사업이 완료되면 민간개발 중형항공기까지 비행성능시험 전용 비행장에서 비행성능 계측장비 성능시험, 첨단 계기착륙, 관제통신, 감시설비 등의 비행시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며, 개발 항공기의 수출을 위한 인증이 가능해져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선진국 수준의 항공산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밖에 우주센터 기능강화 및 역할의 다양화, 발사체 기초기술 확보, 인력양성 목적으로 추진된 과학로켓센터 구축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우주항공 관련 체험 · 관광 · 숙박시설 구축 등을 위한 우주랜드 조성사업은 민자사업임에도 국가에서 지원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첨단 우주기술개발 지원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광양만권 미래소재산업과 연계한 전 · 후방산업 육성, 지역 항공관련 시설과 공동발전 방안 모색, 우주테마파크 조성, 우주센터 개방사업 조기 추진 등 우주문화관광산업의 육성, 호텔 · 리조트와 같은 체류형 숙박시설 조성에도 최선을 다한다면, 전라남도가 국제적 우주중심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10. 중소조선산업 활성화

조선산업은 자본과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막대한 초기자본이 필요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도산업이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1970~80년대에 본격적인 산업기반을 갖추었으며 2000년대 들어 세계적인 교역량 증가로 해상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선박수주 및 건조량에서 세계 1위의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전남 서남권의 대표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은 3만여명의 일자리를 창출시켰고, 2005년 1조9천억원이였던 매출액은 2012년에 6조4천억원까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를 부흥시켰던 대표적인 효자산업이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중국의 거센 추격 등 국내외적 위기가 닥치면서 중소조선사들이 수주난, 선가하락, 매출과 고용감소 등 시련을 겪게 되었다.

다행인 것은,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인해 해양플랜트분야가 조선업종

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음에 따라 국내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드릴쉽, FPSO 등 해양플랜트 분야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레저장비산업분야에서도 소형조선사들을 중심으로 세계시장 진입과 국내시장 저변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저명한 조선·해양 분석기관인 클락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하반기 세계조선시장이 최저점을 찍고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전남도내 조선사와 조선기자재기업들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있으며, 워크아웃 중인 중형 조선사가 다시 거액의 수주를 성사시키는 등 오랜만에 조선경기에 활력이 돌고 있다.

전라남도에서는 지역대학, 연구기관, 유관기관, 관련기업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침체기에 있는 조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업종 다각화와 구조 고도화를 위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생생한 의견을 듣고 전라남도가 할 수 있는 사안과 정부에 요청할 안건을 구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해가는 등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조선산업 활성화 정책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목포와 여수의 기존 마리나시설을 요트계류장은 물론 수선사업과 연계해 동북아 요트시티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또한 조선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고등학교와 대학의 담당자들과 공동으로 조선기능인력 공급부족 해소방안을 강구하였다. 한편 영세한 레저선박 제조업체들의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한 해양레저장비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선박엔진 국산화, 요트동력원을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 요트부품 국산화 및 기업유치 등을 추진하였다. 빼어난 섬과 해안선을 가진 시·군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때 요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입비를 지원하였다.

조선산업은 특히 전남 서남권에 집적되어 있으며, 대불산단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불산단을 조선산업전용단지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남조선산업 클러스터구축 기본계획(2003.7.)과 조선산업 클러스터구축방안(2003.9.~2014.3.)을 수립한 후, 2004년 지역산업진흥사업의 4대 전략산업에 조선산업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전라남도와 정부정책에 따라 선박블록, 선박의장기업 등 180여개사의 조선기자재기업이 대불산단에 집적화되면서 대불산단의 분양률이 95%를 넘어서게 되었다. 또한, 삼호산단, 목포삽진산단 및 산정산단, 해남화원산단 등 연관 산업단지에도 수많은 조선기업이 집적하게 되었다.

조선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R&D 확대를 위해 전문생산기술연구기관인

중소조선연구원 서남권본부('99년)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남분원('09년), 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12년) 등 관련 전문기관을 꾸준히 유치하였으며, 목포대와 목포해양대에 국가지원 RIC('06~16, 155억원)와 RIS('10~16, 57억원)사업을 유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형조선사와 조선기자재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양성, 애로기술지원, R&D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조선연구원 서남권해양레저장비 생산지원동 전경

또한, 바다를 끼고 있는 목포, 진도, 신안 등에 노후된 FRP 행정선 3척을 요트형 다기능 행정선으로 교체 건조 지원('09~'13, 53억원)함으로서 투자유치와 행정효율화, 연료절감 등의 성과를 거양하여 타 시도가 벤치마킹하는 우수사례로 뽑히기도 하였다.

요트형 다기능 행정선

아울러, 전남과 전북, 부산이 참여하는 초광역경제권 연계 · 협력사업으로 국내 최초 탄소섬유 소재의 크루즈보트 50ft급을 제작('11~'14, 47억원)하였는데, 국제규격을 인증 받아 해외수출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R&D 지원사업으로는 도내 레저선박 제조기업이 주관하여 태양광 전지를

o 제원

- 길이 : 50피트(15.2m)
- 폭 : 4.64m
- 승선 : 11명
- Hull높이 : 2.32m(draft 0.62m)
- 총톤수 : 11.6m
- 엔진 : 425마력×2기(美커민스)
- 속도 : 25~38노트

※ 특징

– 스틸(Steel)에 비해 인장강도 4배, 가격 3배, 중량 1/10 수준

탄소섬유 소재 크루즈보트

탑재한 보트 2척을 연구개발에 성공하여 사업화를 위한 발판을 이미 마련했으며, 해양레저선박 건조와 부품가공에 필요한 고가 생산지원장비 50종을 구축('11~'14, 84억원)하여 보트제작 및 기자재가공 등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레저선박 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레저선박 부품 · 기자재 시험인증지원시스템 구축사업('14~'19, 220억원)을 기획하고 정부 산업기술개발 기반 구축사업에 공모 신청 중에 있다.

전라남도는 일반상선 건조 위주의 조선산업을 고부가가치, 고난이 기술력이 요구되는 해양플랜트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해양플랜트 케이블 시험연구센터 구축사업('14~'18, 245억원)을 2014년도 정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제2의 조선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서남권 조선산업의 핵심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과 대한조선 등 대형조선사는 기술력과 기업신용도가 높아 선박수주가 용이한 편이나 중소형 조선사는 상대적으로 기업신용도가 낮아 금융권으로부터 선수금 환급보증발급 및 선박제작금융 등 자금을 얻어 쓰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어렵게 협약에 성공하고도 수주에 필수요건인 선수금 환급보증서(RG)를 발급받지 못해 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형조선사의 선박건조설계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대불산단 내에 선박설계시스템을 구축(14억원)하여 경상권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설계역량을 강화코자 했으나, 조선 · 해운경기 장기불황으로 중형급 조선사들 대부분이 구조조정(워크아웃 1개사, 법정관리 2개사, 퇴출 1개사, 매각 3개사) 되면서 활용도가 낮아진 실정이다.

한편 불황에 장기간 노출된 조선기자재기업과 근로자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한 영암군지역을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토록 정부에 신청했으나, 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비정규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아 기업경

기실사지수(BIS)와 비자발 이직자수가 지정기준에 못 미쳐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

앞으로, 전남 조선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켜 기업경쟁력 강화, 해양플랜트산업과 해양레저선박산업으로 사업 다각화 및 구조고도화 추진, 신지역특화사업과 산업권협력사업을 통한 조선 · 해양플랜트산업 적극 육성, 신안 조선타운과 고흥 조선타운의 조속한 개발과 투자유치를 통해 조선산업의 부활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11. 친환경 운송차량산업 기반구축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위기와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억제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분야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그린 카 산업 육성에 집중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국가차원의 전략을 수립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준공식

전기자동차 투자 협약식

전라남도와 영광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 산업으로 "녹색의 땅 전남"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고 전남의 산업정책과 부합되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산업을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투자를 유치함은 물론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로 영광군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끌어냈다.

도시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군 단위에서는 전기자동차라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無에서 有를 창출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었지만, 전라남도와 영광군은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이 입주할 수 있는 164만㎡ 규모의 대마일반산업단지를 전기자동차 특화산단으로 조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진산전, 신옥테크, 씨스톤 등 18개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와 같이 기반이 완료되자 본격적으로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를 선점하여 선도 시범도시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전라남도는 22개 전 시 · 군에 60㎞/h이하 도로 약 6,511개 노선 7,294㎞를 전국 최초로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으로 지정하고 운전자 안전을 위한 안전

표지판도 1,565개소에 설치 완료 하였다. 또한, 조선대학교와 인재양성 업무 협약도 체결하여 고급인력을 공급하는데도 주력하고 있으며, 영광실업고등학교內에 자동차 학과도 개설하여 고졸 생산인력도 2015년도부터 배출하게 된다.

2010년에 영광군이 '전기자동차 보급 선도도시'로 지정된 후, 전기차 구매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와 영광군이 공동으로 730억원을 투자하여 차량개발 공동 R&D, 실내외 성능 실증 인증, 주행평가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부품연구원 전남 분원을 유치하였다. 이에 따라 명실상부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공기관 최초 전기자동차 발대식

자동차부품연구소 전남 분원 설립 협약

연구소 조감도

12. 신소재산업 육성

신소재산업은 자동차, 우주항공, 정보통신산업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의 핵심소재로 사용되는 첨단기술의 복합체로서, 기술혁신과 신규투자가 유망한 신산업이자, POSCO나 여수산단과 연계할 수 있는 미래 성장산업이기 때문에 전남의 산업고도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산업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신소재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지대하고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식기반화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조립 생산능력의 평준화로 이제는 경쟁의 패러다임이 완제품에서 부품소재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서 알 수 있듯이 신소재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더불어 2005년 이후 원자재가격의 변동 폭이 커지면서 철강, 에너지, 전자 등 산업전반에 사용되지만 제품 중 함유량이 소량임에도 필수기능을 담당하는 희소금속소재산업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정부가 「희소금속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안정적인 희소금속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희소금속을 가공하는 소재화산업을 육성하고 희소금속 재활용기반을 확보하기로 하여, 희소금속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전라남도에서 각광받고 있는 신소재는 크게 신금속, 파인세라믹, 고분자 융·복합소재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이들 3대 신소재별 특화 유망분야를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는 중이다.

첫째, 신금속 분야에서는 새로운 거대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마그네슘 등 기능성 경량소재를 특화분야로 선정하였다. 그동안 순천시 해룡면 율촌 제Ⅰ지방산단에 부지 9,918㎡, 건물 3,967㎡ 규모의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2005.6.) 하였고, 2006년 6월에는 1,322㎡ 규모의 제2공장을 완공하였으며, POSCO 마그네슘 판재공장을 순천시 해룡산단에 2007년 7월에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시설인 시험생산동을 2008년 10월에 준공하여 마그네슘 전문기업이 속속 입주하는 등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성군 조성면에 사업비 90억원을 투자하여 경량소재 수송기기 부품 사업화지원동을 구축(2012년 3월 준공)해 기존 순천 해룡산단과 함께 마그네슘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세계적인 마그네슘 공급기지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특히 개소 이래 낙후된 지역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 심혈을 기울인 신소재 기술산업화지원센터의 기업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이 성과를 나타내 관련 기업의 매출이 약 12.9%, 고용이 약 8.6% 증가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전남의 경량금속 소재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관기업유치도 적극 추진해 2,500억원의 기업투자 유치와 600여명의 고용창출에 기여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신소재센터 입주기업인 ㈜휴메릭은 2009년 11월 입주한 후 마그네슘소재를 활용한 LED용 방열판을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고 있는 바, 매년 매출이 상승하여 2013년 매출이 입주 당시에 비해 약 3,000% 향상되는 비약적인 매출신장세를 거두기도 했다.

아울러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10대 핵심소재(WPM)개발 국책사업에 선정돼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공장 등과 함께 '수송기기용 고강도 마그네슘 벌크재 개발'을 위한 공동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마그네슘 소재가 자동차 등 수송기기 분야, IT, 레저스포츠 등 경량화가 필요한 분야에서 점차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정부에서도 집중 투자를 통해 세계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0대 핵심소재(WPM) 개발과제를 통한 조기 상용화 및 포스코의 자동차용 광폭판재(2,000mm)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전남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희소금속을 육성할 순천대학교 '희유자원 실용화센터'와 2008년 11월에 준공된 광양제철소 내 SNNC 페로 니켈공장을 기반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희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 충청 등 타 지역의 희소금속산업 동향을 분석하여 전라남도에 적합한 희소금속 소재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한국-중국간 금속소재 기술교류회

강소양자강국제야금공업원과 업무협약 체결

둘째, 파인세라믹이란 전통 세라믹제품에 비해 세라믹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고도로 정제된 원료와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비금속 무기재료로서 전남에서는 구조세라믹을 특화분야로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인프라 조성에 주력하였다.

구조세라믹은 자동차, 항공기 등 수송기계, 정밀기계용 부품소재 및 고온내열, 내마모 부품으로 사용되는 첨단소재로서 그동안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서남권 세라믹협의회에서 수차례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간담회를 통한 논의 끝에 지역 현실에 걸맞고 발전 잠재력이 큰 분야로 선택되었다. 이에 따라 서남권을 구조세라믹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세라믹산업 종합지원센터를 목포시 연산동에 개소하고, 18개 입주기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비산화물계 구조세라믹 부품소재 Hub 구축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고분자 융·복합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고흥군에 사업비 111억원을 투자하여 고분자 융·복합소재센터 구축을 완료(2012년 3월)하였고 현재 5개 회사가 입주해 있으며 향후 풍력블레이드, 친환경요트 등 성장성이 높은 미래산업을 육성하는데 산파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3대 신소재별 특화유망분야는 지역산업진흥사업 2단계사업과 연계하여 신지역특화사업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육성 중이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3대 신소재별 지원 인프라를 기반으로 핵심 R&D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적 사업을 본격 지원하고 투자유치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포스코 마그네슘 광폭판재공장 2단계 착공시기에 맞춰 관련 후방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관련 정부사업을 활용하여 신소재 분야 중 마그네슘, 알루미늄, 타이타늄 등을 이용한 연구개발 사업화를 통해 신소재 관련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우수한 중소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13. 고기능 세라믹 원료소재산업

전남은 예로부터 고령토, 점토, 납석, 도석 등 도자기 원료의 매장량이 풍부하여 전통세라믹산업이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다수의 파인세라믹 원료업체가

생겨나 국내 유일의 세라믹 원료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에 착안하여 국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핵심 부품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세라믹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고기능세라믹원료소재산업 육성을 제안하였다. 이는 곧바로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2016년까지

세라믹원료소재 수요산업

국고보조금 131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확정되었다.

세라믹스는 금속재료와는 반대로 전기를 잘 전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볍고, 플라스틱(유기재료)에 비해 고온에도 잘 견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자기, 유리, 내화물, 시멘트 등 전통 세라믹산업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산업 등 첨단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 개소식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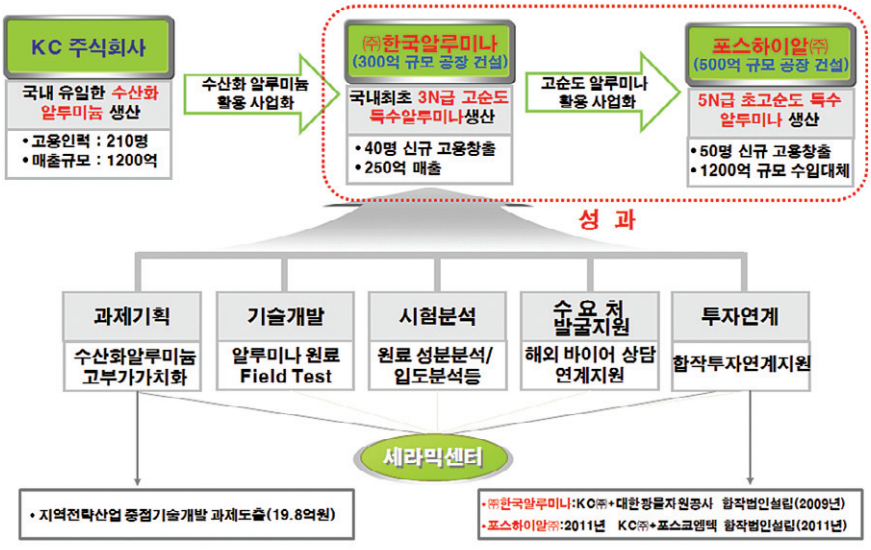
첨단세라믹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단지조성

소재가 바로 세라믹 원료소재이다. 전남에는 이러한 세라믹 원료의 매장량이 풍부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능 세라믹산업 육성의 최적지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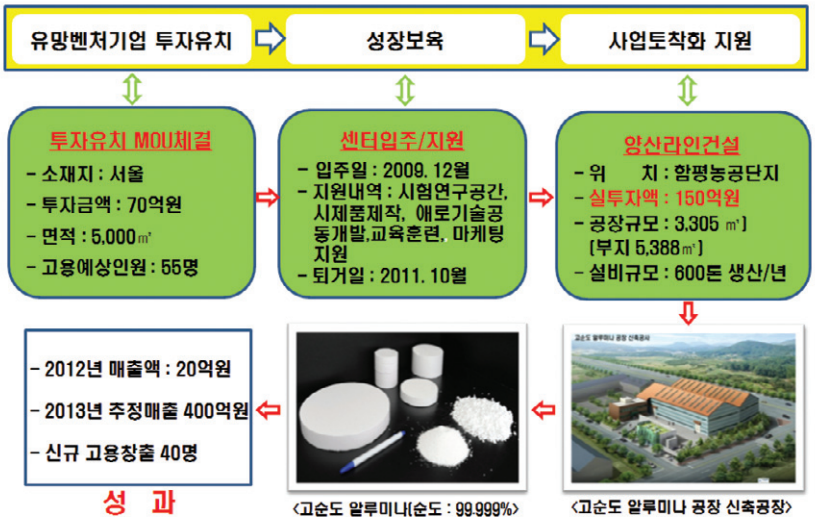
전라남도는 첨단 세라믹산업 육성을 위해 (재)전남테크노파크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에 최첨단 세라믹 제조공정장비 49종 49대를 구축·운영하여 국내 세라믹기업의 시제품 제작지원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술 및 사업화 지원, 인력양성 등 기업육성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세라믹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전남 지역에 42개의 첨단세라믹기업이 모이게 되었다.

첨단세라믹전문기업과 투자유치 업무협약

2013년 12월, 전라남도는 첨단세라믹산업 클러스터로서 11만5천㎡의 세라믹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마치고, 인접지역에 약 23만㎡에 달하는 대양일반산업단지를 2015년까지 조성할 예정이어서, 명실상부한 첨단 세라믹산업의 메카로



한국알루미나와 포스하이알 기술사업화 성공사례



업종 전환을 통한 사업토착화 사례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능 세라믹의 일종인 알루미나 제조기업 유치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도 개척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서울소재 태양열 제조기업인 해마루에너지를 (재)전남테크노파크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으로 유치하여 세라믹 원료산업으로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2013년 3월 고순도 알루미나(순도 : 99.999%) 공장을 함평농공단지 내에 준공하여 사업 토착화를 이루었다. 또 다른 고순도 알루미나 공장인 한국알루미나(2010년)와 포스하이알(2013년)이 대불공단 내에 제조공장을 준공하고 신규 고용창출과 매출액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14. 헬스케어 소재산업 기반구축

헬스케어 소재란 식품 및 의약품으로 활용 또는 제품화 될 수 있는 천연 생물 소재를 일컫는다. 전남에서는 생물산업진흥원 내 천연자원연구원을 통해 고차 가공식품, 기능성 소재, 건강기능식품, 웰빙소재, 천연물 의약품 개발에 사용되는 '호남권 비교우위 생물자원 120여종'을 헬스케어 소재로 선정하여 체계

KTR 헬스케어연구소 준공식

화순 KTR 헬스케어연구소 전경

적으로 전자정보 DB화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헬스케어소재를 산업화하고 R&D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 화순군에 KTR 헬스케어연구소를 유치하게 되었다. 본 연구소 유치사업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안전성 평가 본부' 이전 유치사업으로 출발했지만, 2010년 8월부터 총 2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함과 동시에 연구소로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어 2013년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화순군 화순읍 3만4000㎡ 부지에 설립된 KTR 헬스케어연구소는 시험연구동(본관동)과 소동물동, 중동물동, 영장류동 등 총 4개동, 건축연면적 9,650㎡ 규모로 조성됐다. KTR 헬스케어연구소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화학물질, 농약 및 생활용품의 효능평가 및 독성 등 안전성 시험 및 평가를 수행하고, 국내외 인증을 통해 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지상 3층 규모의 시험연구동에는 독성 및 효능평가 등을 실시하는 비임상시험 시설, 인력, 장비 및 시험 등 전반적인 신뢰성을 보증하는 QAU(Quality Assurance Unit)를 비롯해 시험상담, 접수, 성적서 발급 등 행정적인 절차가 이뤄지는 고객센터, 유전독성시험실, 미생물배양실, 첨단 성분분석장비를 갖춘 분석실과 화학물질 및 농약의 평가를 위한 이화학분석실, 환경잔류성시험실, 어류 · 물벼룩류 · 담수조류 · 지렁이 · 꿀벌 시험실 등이 갖춰졌다.

동물시험동에서는 설치류, 비글견, 영장류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화장품 및 식품, 생활용품 등의 효능과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비임상시험이 이뤄진다. 특히 화순 헬스케어연구소는 동물시험을 통한 전임상시험 이외에 동물세포, 미생물, 계란 등 비동물을 활용한 전임상시험이 가능한 시스템을 2017년 설립

KTR 헬스케어연구소 시너지

완공 목표로 구축하고 있다.

한편, KTR 헬스케어연구소는 지하 200m 깊이의 지열을 이용해 수요 냉난방에너지의 전량을 공급하고 100% LED전등을 채택하는 등 친환경 녹색기술을 이용해 에너지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건설됐다.

이처럼 KTR 헬스케어연구소 건립으로 기능성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을 개발할 때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며,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이미 구축된 기관들 사이에 유기적 상호작용을 통해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전망이다. 가령 전남생물의약센터는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KTR 헬스케어연구소는 비임상 및 시험인증, 전남대학교병원은 임상실험, 녹십자는 제품생산 등을 담당하는 등 연구개발부터 수출까지 효율적인 산업육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비파, 울금, 복분자, 헛개 등 전남지역의 풍부한 천연물 소재의 효능평가, 기능성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헬스케어 소재산업의 글로벌 제품화를 위한 시험인증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전남지역은 물론 국내 관련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층 돕게 되었다. 아울러, 화순 헬스케어연구소 건립으로 KTR은 기존 김포 헬스케어연구소 직원 60여명과 관련 시험장비를 이전했으며, 2015년까지 150여명의 직접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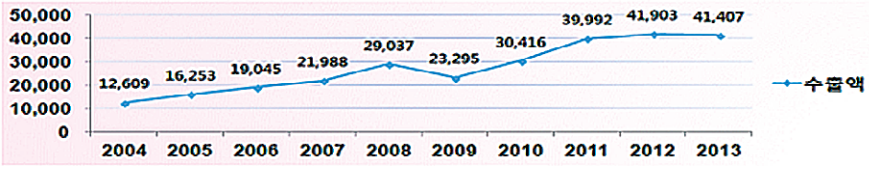
15. 수출확대

2004년 전남의 수출액은 126억불에 불과했지만, 그 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414억불 수출을 달성하였다. 10년 사이에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14%에 달하며, 전국 16개 자치단체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수출실적

(단위 : 백만원, %)

품목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액	12,609	16,253	19,045	21,988	29,037	23,295	30,416	39,992	41,903	41,407
증감율	-	28.9	17.2	15.5	32.1	△19.8	30.6	31.5	4.8	△1.2



이러한 양적 성과 이외에도 수출국가 확대(149국→170국), 수출품목 증가(741품목→1,462품목) 등 무역다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갔다. 이러한 성과는 국제박람회, 무역교류단 파견 등 해외마케팅 사업을 통한 시장 다변화 추진과 공세적 통상활동 지원을 통한 기업의 수출상품 개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수출국가 · 품목

(단위 : 백만원, %)

품목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국가	149	156	157	153	159	153	164	160	172	170
수출품목	741	773	884	873	952	1,195	1,227	1,286	1,331	1,462

주요 수출품목을 보면 수출액 상위 10대 품목 중 광물성연료,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수송기계, 정밀화학제품, 비료, 플라스틱 제품, 농 · 수산물 등 9개 품목이 주종을 이뤘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수출비중이 9%에서 31%로 증가하여 기업 눈높이에 맞는 단계별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라남도가 중소기업 수출증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온 결과이다.

2010년 사상 처음으로 수출 300억불을 달성하였다. 이는 유럽발 재정위기, 환율, 원자재가격 고공행진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11.2.24.)에서는 어려운 수출여건 속에서도

공세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창의적인 기술개발 노력 등으로 수출증진에 앞장선 기업인 24명, 근로자 12명과 수출지원 유관기관 4명, 공무원 5명 등 총 45명이 도지사, 지식경제부장관, 한국무역협회 회장 표창을 받게 되었다.

수출 300억불 달성 기념행사

금액 측면에서는 주요 수출품 중 9번째에 그치고 있지만, 농수산식품의 수출 또한 괄목할 만큼 증가하였다. 2004년 1억 4천만불에 불과하였던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013년 3억불을 돌파하였다. 이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친환경 농수산업 · 가공식품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비록 대기업의 도움은 없었지만 농어민들의 노력과 중소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이 어우러져 매년 평균 10% 이상의 성장을 거듭한 결과이다. 또한 친환경 농수산정책을 추진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해외 유력 바이어와 안정적인 유통망 발굴을 위해 공세적인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도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농수산식품 수출추이

(단위 : 천불, %)

구 분	2013	2012	2011	2010	2009	2004
계	304,418	294,176	267,021	199,896	162,610	145,877
증가율	3.5	10.2	33.6	22.9	11.9	13.5
농산식품	148,100	135,290	125,811	94,877	73,976	50,363
수산식품	156,318	158,886	141,210	105,019	88,634	95,514

농식품 중 주요 수출품목은 유자차, 배, 파프리카, 김치, 닭고기 등이며, 수산식품 중 주요 수출품목은 전복, 톳, 미역, 김 등이었다. 전남산 농수산식품은 2003년 33개국에 160여 품목 수출에 그쳤지만 2013년 52개국에 247품목으로 확대되었고, 2010년부터 4년 연속 농식품부 주관 지자체 수출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농수산식품 주요품목 수출동향

(단위 : 천불)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주요 수출국
농산식품	유자차	12,027	13,106	15,851	18,151	20,793	중국, 일본, 홍콩
	배	9,528	10,035	8,710	9,117	8,728	미국, 대만, 홍콩
	파프리카	5,686	7,760	7,191	12,333	9,254	일본
	김 치	3,596	3,017	6,734	7,886	6,840	일본, 대만, 미국
	닭고기	4,819	5,268	6,661	8,184	6,792	일본, 홍콩, 베트남
수산식품	전 복	20,160	10,035	40,977	42,604	43,694	일본, 대만, 홍콩
	톳	25,181	26,848	28,641	23,415	18,061	일본, 중국
	미 역	9,043	9,785	24,399	21,970	14,721	일본, 중국, 미국
	김	8,669	8,167	12,398	25,079	44,486	일본, 태국, 미국

※ 수출국 : 52개국, 수출품목 : 247 품목(2013년 기준)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 증가의 1등 공신은 첫째, 친환경 농수산정책이라 할 것이다. 2013년 기준 전국 유기농산물 57%, 축산물 36%, 수산물 100%를 친환경으로 생산하고 있어,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강화를 위해 농수산무역 전문교육운영, 해외유기농 인증지원, 농수산식품 안전성 성분분석 지원, 신선농산물 30개 품목의 물류비 지원을 통하여 수출상품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했다.

또한 안정적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16개국의 교민과 현지 바이어 70명을 해외 수출에이전트로 위촉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해, 2013년에는 1천8백만불의 수출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수출기업 해외홍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고정유통망 확보와 수출시장 다변화에 힘썼다. 이와 함께 매년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하고, 해외판촉 확대, 친환경농수산식품 해외시장 동향분석 등 수출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2014년 道 통상진흥사업

사업목표	추진과제	과제별 단위사업
신흥 수출시장 개척 및 고정유통망 발굴	해외 종합 마케팅 지원	▷ 무역교류단 파견 ▷ 해외 공산품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공산품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추진 ▷ 내수 · 수출 초보기업 수출기업화 추진 ▷ 공예품 해외 판촉행사 ▷ 인터넷무역 지원 및 수출정보망 운영 ▷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출장지원
수출상품 인지도 향상 및 신규품목 개발	수출 경쟁력 강화	▷ 전남형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 육성 ▷ 수출상품 디자인 개발 지원 ▷ 수출기업 홍보동영상·카탈로그 제작 지원 ▷ 중소기업 소량수출 활성화 지원 ▷ 수출보험료 지원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신규, 영세 중소기업 자력 수출 역량 제고	자력 수출 기반 구축	▷ 무역 전문교육 운영 ▷ 통상닥터제 운영 ▷ 수출기업 통 · 번역비 지원 ▷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 ▷ 전남 수출상시상 및 수출 연찬회 개최 ▷ 수출현장 애로해소 순회간담회 추진

앞으로도 농수축산업의 규모화와 기업화 및 공세적인 해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출을 통한 농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전남 농수산식품의 잠재력과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타 시도에 비해 대기업이 많지 않고 농업이 기반산업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2020년 수출 1,000억불 달성을 목표로 글로벌 중소기업 3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여러 기관에서 글로벌 전문기업, 한국형 히든챔피언 등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남에서도 수출초보기업에서 히든

단계별 수출중소기업 육성

「수출초보기업 ⇨ 수출유망기업 ⇨ 차세대일류상품생산기업 ⇨
글로벌 강소기업 ⇨ 글로벌 전문기업 ⇨ 히든 챔피언

농수산식품 3억불 수출달성 기념식('13. 2.)

농수산식품 3억불 수출달성 기념식('13. 2.)

태국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13. 5.)

동경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13. 3.)

챔피언까지 단계별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히든챔피언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무역교류단 파견 · 박람회 참가지원 등 해외 마케팅 지원, 수출용 홍보동영상 및 카탈로그 등 홍보물 제작지원, 통상닥터제 운영을 통한 통상애로해소, 수출기업화사업 · 무역전문교육 등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등 다양한 수출진흥시책을 확대 · 강화하여 전남도가 수출 1,000억불을 넘어 2,000억, 3,000억불을 달성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갈 것이다.

16.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

2010년 하반기에 도입된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중앙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지역일자리 성과를 높이는 고용활성화 정책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률 제고를 위해 일자리 정책을 민선 5기 지자체장 임기와 연계, 공시제를 통해 지자체별 일자리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일자리공시제 관련하여 '구호수준' 의 일자리 공약을 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들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다.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모두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남은 2010년말 공시제에 도와 22개 시 · 군 모두가 참여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특히, 전남지역은 경제적 하부구조의 경쟁력 약화로 일자리 대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률 제고는 도정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2천개 기업 유치, 10만개 일자리 창출을 민선 5기 정책목표로 제시해 인구 감소 완화, 기업유치 향상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투자유치와일자리창출

구 분	계	민 선 5기			
		'10.7~'12	2011	2012	2013
유치기업	1,399	189	388	397	425
유치액(억원)	209,925	38,515	79,998	42,408	49,004
일자리(명)	46,778	7,530	16,988	11,438	10,820

출 산 율

구 분	'09	'10	'11	'12
신생아수(명)	15,172	15,914	15,952	16,989
출산율(명)	1.45명	1.54명	1.57명	1.64명

광남일보 2013년 3월 29일 [지역] 08면

전남도 종합대책 '성과'

나주시·보성군·담양군과 함께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3억8000만원 확보

전남도가 고용노동부의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에서 나주시, 보성군, 담양군 등과 함께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재정인센티브 사업비로 3억8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도는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인 기업 2천 개 유치, 일자리 10만 개 창출과 도정 방침인 도민에게 희망주는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전남도 일자리 목표 종합대책'을 지난 2010년 마련하고 체계적 실행을 위해 5대 추진전략과 각 전략별 추진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선 5기 동안 기업 유치를 비롯한 일자리 종합대책을 통해 창출할 총 일자리 목표는 30만 개다.

목표가 완료되면 2010년 88만5000 명인 취업자 수가 2014년 91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전남도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일자리 18만 5천350개(목표 대비 61.8%)를 창출해 취업자 수 91만 1천 명(목표대비 100.1%)을 기록, 목표 달성이 순항 중이다.

특히 지난해 일자리 종합대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6만 8천 개를 창출하고 이 중 상용 일자리 1만 8천 개(30%)를 도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정책의 질을 한층 끌어올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전남도내 일용근로자 감소가 뚜렷하고 상용근로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일용근로자는 2010년 6만6000 명에서 2011년 6만2000 명, 2012년 5만7000 명으로 줄었고 상용근로자는 2010년 25만7000 명에서 2011년 26만4000 명, 2012년 26만5000 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도 고용정책을 자문하는 김일태 전남대 교수 등 고용전문가 그룹과 목포고용센터 등 고용 관련기관 간 촘촘한 거버넌스 구축과 활발한 정책 교류 등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홍성장 기자 hong@

전남이 당면한 지역일자리 창출은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2000년대 이후 전남의 지역내총생산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어 '고용 없는 성장'을 보여 주고 있다. 전남의 2012년 고용구조를 보면, 고용률 62.6%(전국 59.4%), 취업자 수 911천명, 실업자 수 15천명, 비경제활동인구 529천명이며, 15~64세 고용률은 67.5%로 전국 평균(64.2%)보다 높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33.7%로 전국 평균(40.4%)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남 취업과 고용 현황을 보여주는 취업계수(Employment to GRDP Ratio, 산업의 고용흡수력을 나타내는 지표)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내총생산의 산출액 10억원을 생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전남의 고용탄력성(Elasticity of Employment,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을 보여주는 지표)도 2001년 이후 몇 해를 제외하고는 음(-)으로 고용감소 잠재성을 갖고 있다.

전라남도 취업계수 및 고용탄력성 추이

연도	취업자수(천명)		지역내총생산(10억원)		취업계수	고용탄력성
	(A)	증가율(B)	(C)	증가율(D)	(=A/C*1000)	(=B/D)
2001	978	-0.31	29,380	5.57	33.29	-0.06
2002	981	0.31	33,603	14.37	29.19	0.02
2003	958	-2.34	36,001	7.14	26.61	-0.33
2004	931	-2.82	39,706	10.29	23.45	-0.27
2005	931	0.00	42,816	7.83	21.74	0.00
2006	918	-1.40	42,182	-1.48	21.76	0.94
2007	905	-1.42	47,021	11.47	19.25	-0.12
2008	904	-0.11	52,387	11.41	17.26	-0.01
2009	909	0.55	51,048	-2.56	17.81	-0.22
2010	885	-2.64	58,750	15.09	15.06	-0.17
2011	886	0.11	62,322	6.08	14.22	0.02
2012	911	2.82	-	-	-	-

주 : 1) 취업계수 = 취업자/GRDP, 고용탄력성=취업자증가율/GRDP 증가율
2) 고용탄력성 등의 경우 소수점 아래가 고려되어 실제 수치와 다를 수 있음
3) 2012년도는 GRDP 데이터 미비로 취업계수나 고용탄력성을 구할 수가 없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내 총생산, 각 년도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도는 지역고용심의회, 지역노사민정협의체, 지역고용포럼 등 지역 내 고용관련 기구를 활용해 구체적인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해 지역 언론,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공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목표는 고용률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 통계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지표와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별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해 왔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일자리 대책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유지 및 미스매치(mismatch) 해소, 직업능력개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대책을 발굴해왔다.

이를 반영하듯 전라남도와 22개 시 · 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 및 고용관련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2010년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것이다. 한편, 전남도는 기업 및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67.5%인 고용률을 70% 이상으로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남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주요 실적

❖ 2010 지역 일자리정책 한마당(2010.12.7.)
- 종합대책 부문 : 대상(장흥군), 최우수상(나주시), 우수상(광양시, 여수시, 담양군), 장려상(고흥군, 전라남도) 등 7개 자치단체 수상
- 브랜드사업 부문 : 최우수상(장흥군), 우수상(담양군), 장려상(순천시, 여수시) 등 4개 시군 수상

❖2011 지역 브랜드일자리사업 경진대회
-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부문 : 우수상(나주시, 순천시) 등 2개 자치단체 수상
- 사회적기업 부문 : 우수상(광양시, 장흥군) 등 2개 시군 수상

❖ 2012 지역 일자리정책 한마당(2012.03.13.)
- 최우수상: 전라남도 광양시
- 우수상: 전라남도 나주시, 담양군, 장흥군

❖ 2012 지역 브랜드일자리사업 경진대회
-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부문 : 우수상(순천시, 담양군) 등 2개 자치단체 수상
- 사회적기업 부문 : 우수상(여수시, 화순군) 등 2개 시군 수상

❖ 2013 지역 일자리정책 한마당(2013.03. 28.)
- 최우수상: 전라남도 담양군
- 우수상: 전라남도, 나주시, 보성군

17. 용산역 광주 · 전남 비즈니스 라운지 운영

2013년 3월 20일 광주상공회의소 3층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광주상공회의소, 전남소재 목포 · 순천 · 여수 · 광양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지역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주 · 전남 비즈니스 라운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광주와 전남이 함께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 모델을 발굴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협력하는 민관 공동 협력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 협약 이후, 2013년 5월 3일 서울 용산 KTX역사에 광주전남 비즈니스 라운지를 개소하기에 이르렀다.

비즈니스라운지는 광주 · 전남 지역기업들의 수도권 판로개척, 해외 마케팅 지원, 지역기업 및 지역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원거리 출장 시 간담회 장소로서, 긴급한 계약 체결 시 컴퓨터 및 정보통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바이어와 수출을 위해 미팅장소를 제공하여 지역기업의 수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광주 · 전남지역 기업들은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해외 바이어와 긴급하게 수출상담을 추진할 경우 적절한 비즈니스 장소를 확보하기 힘들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특히 FTA 체결 등으로 시장개방이 본격화되면서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를 많이 찾고 있지만, 이들이 광주 · 전남지역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고, 통역 등에 애로를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지역 기업인을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광주 · 전남 비즈니스라운지이다. 최상의 비즈니스 여건과 시설을 갖춘 광주 · 전남 비즈니스 라운지는 새로운 판로개척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꿈꾸는 광주 · 전남 지역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즈니스라운지 설립의 중요성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상담 장소 이용 희망기업을 조사한 결과 약 520개 기업이 비즈니스라운지 설립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용산역 4층에 설치된 광주 · 전남 비즈니스라운지는 누구나 찾기 쉬워 방문객 수가 갈수록 늘고 있다. 개소 10여개월만에 5,200여명이 방문해 하루 평균

비즈니스라운지 시설

25명이 이곳을 찾아 업무를 진행했으며, 단순히 전시물을 보기 위해 방문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약 8,000여명이 라운지를 이용했다. 1년이 채 안되는 사이에 회의실 이용 숫자만 210회를 기록했고, 100여개가 넘는 기업체가 바이어 상담 및 투자유치 회의를 열었다. 최근 한 지역기업이 이 곳에서 200억원 가량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용산역 비즈니스라운지는 광주 · 전남 지역 기업인을 위한 비즈니스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비즈니스라운지 방문록 및 전시부스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이용 편의와 홍보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매번 방문록을 작성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멤버십 카드로 대체할 예정이며, 라운지에 자사 제품을 전시하고 싶다는 지역기업들의 요청이 많아 2014년 상반기 중 전시부스도 추가로 설치된다. 또한 하반기에는 라운지를 이용해 지역상품 판매전을 개최하는 등 지역 홍보전략의 일번지로 키워나갈 계획도 갖고 있다.

기업인들이 라운지에 가장 매력을 느끼는 것은 모든 제반 비용이 무료라는 점이다. 수출상담 등을 위해 수도권의 회의실 대여료가 30만원 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기업들에게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국어가 가능한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어 해외 바이어들과 상담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판로개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업 관계자들과 바이어 수출 상담 장면

광주 · 전남 비즈니스 라운지는 새로운 판로개척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꿈꾸는 광주 · 전남 지역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광주 · 전남지역으로 유치하고, 기업하

기 좋은 광주 · 전남 이미지를 조성해 나가는데도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한편 이번 라운지 개소에 광주와 전남이 함께 한 것처럼 두 광역지자체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상생 협력하는 모델을 발굴해 시 · 도민을 위한 협치행정을 펼쳐간다면 여러 분야에서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18. 고소득농어가와 농수산 특성화고교 멘토링제

수많은 미래학자들은 지구가 앞으로 식량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량안보' 라는 용어까지 등장해 농산어업의 중심지인 전남의 미래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인구증가와 에너지 문제, 잦은 기상이변으로 식량수급이 불안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인구는 2013년 이미 70억명을 넘어섰고, 매년 인구는 7천만명이 증가하지만 곡물 생산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인구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들의 경제성장으로 식량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22.6%(2011년도)에 그쳐 하루 세끼 중 두 끼를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위기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는 친환경농업을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면서 기업화 · 규모화하고, 고소득 작물을 발굴하여 농산물 시장 개방에도 이겨낼 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그 결과 2013년 기준, 축산, 채소, 과수, 수산분야 등에서 1억원 이상 고소득 농어가가 3,400농가로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전남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소득 농어가와 농수산 특성화고교 멘토링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1억원 이상 고소득 농어가를 농수산 특성화 고교생의 멘토로 임명, 농어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변화와 취업동기 부여로 농어촌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 2월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고소득농어가와 특성화고교생 멘토링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멘토링제는 농어촌의 고령화와 농어업 일자리 외면으로 농어업 분야 구인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농어촌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도내 농수산 특성화고교가 소재한 12개 시 · 군에서 농업, 과수, 화훼, 축산, 양식업 등을 하고 있는 고소득 농어가 50명을 멘토로 선정하였으며, 농수산 특성화 고교생 242명을 멘티로 지정하여 멘토 1명당 멘티 5명의 결연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요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13년 2월 18일 멘토 30명과 멘티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멘토링제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4월 10일에는 고소득 양식어가 20명을 멘토로 추가 선정하였으며, 4월 17일 고소득 농어가와 농수산 특성화

소득 농어가와 특성화고교 멘토링제 선포식

멘토링제 운영 개요

- 구성 : 50개팀 292명(멘토 50, 멘티 242명)
  (멘토) 여수시 등 특성화고 소재 12개 시 · 군 농어가
  (멘티) 완도수산고등학교 등 12개 특성화고 재학생
- 분야 : 과수, 화훼, 채소, 농산물가공, 천일염, 축산, 수산업(양식, 가공) 등
- 내용 : 현장실습, 농어번기 일손돕기, 고소득 노하우 전수, 농어업 가공 · 유통분야 창업 코칭 등

고교생간 결연을 체결하였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농어가(농장) 방문 현장체험 학습, 농어가로부터 고소득 노하우 전수, 농어번기철 일손 돕기 등으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5월 15일까지 농어가로부터 탐방 가능 일정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5월 13일 농어가 대표와 시 · 군, 학교 관계자 유관기관

간담회를 가졌으며, 5월 23일부터 1차 현장체험 학습을 시작으로, 7월, 9월, 10월, 11월 30일까지 5회에 걸쳐 현장체험학습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지만, 시행 초기에는 의도했던 것과 달리 다소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농어가의 현장체험 프로그램 부재 및 고교생들의 활동 목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이후 멘토 1명당 고교생 5명씩 멘토-멘티를 연결, 5차례에 걸친 현장체험활동은 점차 프로그램을 갖게 되었고, 인성교육과 성공사례 등을 통해 학생들이 점점 열의를 갖게 되었다.

이처럼 멘토링제가 활성화될 경우, 지역 청년들이 우리 지역 농어촌에 취업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들어오는 지역으로 탈바꿈되어, 활력이 넘치고 훈훈한 전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양생장 및 생식생장 강의

파프리카 낙엽수 운반도구 준비

파프리카 낙엽수 정리 시작

파프리카 낙엽수 정리

파프리카 낙엽수 정리

파프리카 낙엽수 정리

파프리카 낙엽수 정리

파프리카 낙엽수 정리

파프리카 낙엽수 마무리 정리

19.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대불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행복산단 만들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에 문화, 복지,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산단 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은 2014년까지 조선해양산업이 밀집해 있는 대불국가산업단지에 국립목포대학교 대불산학캠퍼스를 조성하여 인력양성-기술개발-고용창출이 선순환되는 융합형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고, 대불산학캠퍼스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립목포대학교 대불산학캠퍼스에는 국립목포대 4개학과(조선 · 기계 · 해양시스템 · 신소재공학과)와 2개의 계약학과(기계해양시스템공학과, 조선시스템학과) 및 IT기반 서남권 중형조선산업 지역혁신센터, 첨단기술교육센터 등이 이전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 전라남도, 현대삼호중공업 등 28개 기관과 (주)한영산업을 포함한 총 222개 기업이 참여하여 대불산단의 조선산업 고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불산단에 근로자 평생학습, 현장맞춤형 교육, 중소기업 역량강화,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며, 산업체와 근로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산학융합 중심의 구조 고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학생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선취업-후진학 체제를 구축하고 근로자에게는 직무교육, 어학강좌, 명사초청 강의, 선급인증 교육 등을 지원하여 산업체에는 전문인력 확보와 인력난 해소라는 이점을, 근로자에게는 취업과 연계한 학위취득과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

대불산학융합지구 및 대불산학캠퍼스

대불산학캠퍼스 전경

한다. 이를 위해 대불 행복산단 만들기 프로젝트의 첫 단추로 특성화고 선취업-후진학 계약학과를 개설 · 운영하고 있다.

선취업-후진학 직무교육

2013년 하반기에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고교생 선취업-후진학 과정에 전남지역 7개 특성화고 우수학생 22명을 선발하였고, 이들은 기업체 채용을 조건으로 대불산학융합지구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수료한 후 회사 취업과 동시에 국립목포대 조선시스템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학생들은 대학교의 정규 학위 과정을 밟으면서 수준 높은 직무교육을 선행하여 기술력 습득과 학위 취득, 취업 성공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게 되며, 기업체들은 양질의 인력을 채용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거두는 기업체, 학생, 학부모 모두를 만족시키는 교육 · 고용사업이라 할 것이다.

한편 대불산단 내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기업연구관에 중소기업의 연구소를 입주시킴으로써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서남권 조선해양 중소기업의 사업다각화 및 매출 증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집, 가족건강센터, 평생교육 학교 등을 설립해 근로자의 문화 및 복지수요 충족까지 고려하며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과 함께 외부사업을 기획하고 유치하여 대불산단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대불산단구조고도화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고, 최근 대불산학캠퍼스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인 대불산단 혁신사업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대아산업(주)과

공동으로 목포대학교 산학캠퍼스 내에 공동직장어린이집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 운영으로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기고 회사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직장문화를 선도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2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은 유통산업의 환경변화와 시설 노후화,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조성, △경영혁신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 등을 목표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먼저 2001년부터 환경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도내 116개소 전통시장 중 84개소(236건)에 2,813억원을 투자하여 아케이드, 주차장, 장옥 신 · 개축 등과 함께 소방 · 전기 · 노후건물 보수 등 구조개선 공동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상권개발 및 시장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시장 내 상인대학 설치, 워크숍 및 상인의식교육,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영마인드를 함양하고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켜왔다.

앞으로도 1시장 1주차장 건립과 지역특산물 및 도소매 유통기능 강화를 위한 현대식 공설마트 전환, 문화 · 관광형시장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하여 많은 고객

이 찾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라남도에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시, 전통시장의 전면적 쇄신을 위해 완전 재건축이나 이전 신축 등의 방식으로 현대식 공설마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바, 곡성기차마을시장, 나주목사고을시장, 강진읍시장, 보성녹차골향토시장, 고흥녹동시장, 광양읍시장 등이 완료되었으며, 무안읍전통시장, 고흥읍전통시장, 영암시종시장, 장흥대덕시장, 함평나산시장 등도 예산이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현황

(단위 : 시장수)

구분	시장수	시장크기별			시장소유별				소재지별			시장형태별			
		대형	중형	소형	법인	개인	공설	공동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상가건물형	노점형	장옥형	상가주택복합
전남	116	-	27	89	7	1	88	20	-	42	74	38	6	57	15
전국	1,511	18	488	1,005	271	15	368	857	620	565	326	705	65	194	547

※ 전국 전통시장 1,511개의 7.6% 차지

확보되어 2014년까지 현대식 공설마트로 거듭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관광과 연계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09년 보성녹차골향토시장, '10년 여수교동시장, '12년 곡성기차마을시장, 목포종합수산시장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고, '13년도부터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나주목사고을시장, 장흥토요시장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4년에는 강진읍시장이 선정되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목포 동부시장

강진읍시장

목사골 시장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약정서 체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광남일보 2012년 4월 12일(목) [지역] 13면

중기청 '2012년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선정

청결·위생적… 편리한 동선구조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이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2012년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에 '2012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됐다. (사진)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은 지난 3월 공모 신청하여 현장평가 등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지난 6일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기차마을전통시장은 2009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이전 신축되어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소비자의 쇼핑이 편리한 동선구조로 건축되 전통시장의 표본이 되고 있다.

또한 인접해 있는 섬진강기차마을, 곡성역 등 관광형 시장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본 사업은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12억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전통시장의 공간 디자인 사업, 각종

문화행사, 판촉행사, 관광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비촉진과 상인회의 내부결속 및 마케팅 교육으로 자생력을 증진시켜 서민들만이 이용하는 시장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문화와 관광과 쇼핑이 있는 시장으로의 모습을 갖추어, 대형마트와의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삶의 현장으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으로 신청되었다.

노해섭 기자 nogary@

21. 전남신용보증재단 지점확대

전라남도는 담보력이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에게 신용보증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2001년 6월 4일 재단 설립인가를 받고, 당해 7월 31일 출범하였다. 재단 본점은 순천시에 두고, 목포, 화순, 장성, 강진, 여수, 해남, 고흥, 광양 등에 지점을 두고 있다. 2014년 2월 현재, 재단의 기본재산은 1,160억원인데, 이 중 전라남도가 가장 많은 423억원을 출연했으며, 그 다음으로 중앙정부(310억원), 금융기관(365억원), 시 · 군이 각각 출연하였다.

2013년 한 해 동안 재단은 16,683개 업체에 3,022억원을 보증하는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에 기여하였다. 출범 후 현재까지 총 보증 공급 누계는 85,029업체, 1조 4,071억원에 달하고 있다.

재단은 일반 보증 취급은 물론 화재, 태풍, 기름 유출사고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업경영 및 가정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특례 보증을 실시함으로써 재난을 당한 지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저신용 계층,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의 창업자금 등 자활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2조 2천억 규모의 미소금융사업도 취급하고 있다. 미소금융사업은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지원대상은 7등급 이하 저소득, 저신용 계층이다.

재단은 향후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들이 희망을 일구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 시 · 군 지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4년에 광양지점, 완도지점을 개설하였고, 하반기에는 나주지점을 개설할 예정이다.